

雲門

불기 2556년

가을호

통권 제 122호

雲門僧加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통권 121호 여름, 《운문》, 댓글

표지의 연둣빛 싱그런 학소대는 또 한 번의 마음이 그 시원한 물줄기에 담기게 합니다. 이미 지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새록새록 지금입니다. 새소리 소박하고 물빛 향기롭습니다. / 사미니과 농호

저는 〈특별기고〉 “외도가 된 종정과 초기불교도의 착각”을 진지하게 보았습니다. 불제자들이 ‘정법’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모두 똑같겠지요. 그러한 빌로에서 쓰인 ‘무아無我’ 와 ‘진아眞我’ 의 논란 사태는 흥미로웠으며, 저 또한 부처님이 전달하고자 한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진지하게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사미니과 덕현

운문지를 읽으면 우리 치문반이 보냈던 방학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바쁘고 힘들었지만 서로 힘내자 격려하며 지냈던 날을 떠올리며 힘들다는 마음을 바꿔봅니다. 부반장을 살면서 막내스님과 달리 잔소리 많이 하고, 겹쳤던 보견이를 잘 봐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도반스님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 사미니과 보견

‘일중일체 다중일’ (개체 속에 전체가 반영되어 있고, 전체 속에 개체는 각각의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을 운문사 채소밭에 심은 옥수수 일갱이가 옥수수로 변화하는 과정에, 일갱이와 줄기는 두 개가 아닌, 하나는 다른 하나의 연속 일뿐이란 말씀. 운문사 학인 중 하나인 내가 일갱이로, 하나의 개체가 아닌 운문인의 연속된 나로서, 더욱 맑고 밝게 살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운문인이 맑고 밝길 또한 한국불교가 맑고 밝길, 더 나아가 우주 만물이 맑고 밝길 기원하며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가슴을 꽉 챙�니다. / 사미니과 지단

가까이 하기엔 멀었던 상반스님들. 운문지를 통해 그분들의 생각을 읽으며 친근감을 느낍니다. / 사미니과 성돈

雲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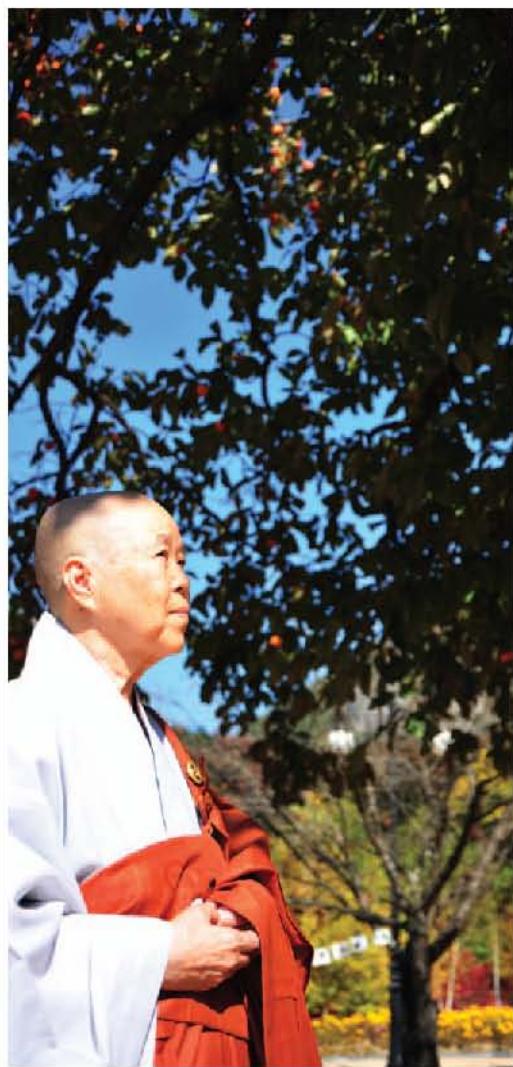
목차



- | | | |
|----|------------|--------------------------------|
| 02 | 호가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 통권 121호, 여름 |
| 04 | 죽림현 | 무정설법無情說法 평성 |
| 06 | 교수논단 | 불살생계를 통해 본 불교의 생명윤리 ㊤ 진광 |
| 10 | 기획연재 | 해외 현장학습을 통해서 알아 본 미국불교 지경 |
| 12 | 풍경소리 | 수행자의 발우레시피 호현 |
| 14 | 특별기고 | 금강역사는 어디에서 왔을까? 심재관 |
| 18 | 자유기고 하나 | 스님, 잘되 잘되! 범진 |
| 22 | 자유기고 둘 | 빈손으로 가는 여유로움 김승광 |
| 23 | 想 | 심월상조心月相照 혜사 |
| 24 | 담소 | 내 손이 절 만한 것 장석남 |
| 26 | 학인논단 | 현대사회의 죽음문제에 대한 불교적 이해와 고찰 ① 현우 |
| 31 | 깨달음으로 가는 길 | 그 나뭇잎은 바로 나무 전체였다 편집부 |
| 32 | 차례법문 | 첨화 계우 |
| 34 | 선사의 별 | 청화 스님의 사성암 동안거 자민 |
| 36 | 수행의 두레박 하나 | 눈물의 의미 우담 |
| 38 | 수행의 두레박 둘 | 운문의 사계 지원 |
| 40 | 수행의 두레박 셋 | 긍정과 부정 그리고 진심眞心 수목 |
| 42 | 선배탐방 | “항상 배우며 산다” 보경 |
| 45 | 운문, 운문인 | 손으로 빚은 반달, 송편 편집부 |
| 46 | 끝없는 여정 | 불국정토를 염원하며 여향 |
| 50 | 이 한 권의 책 |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경인 |
| 52 | 운문논평 | 백, 천 개의 빛이 한 방 안에 비치면 편집부 |
| 54 | 운문소식 | |
| 55 | 등불 | 통권 122호, 가을호, “불드는 달” |

무정설법無情說法

명성 /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임진년 여름은 몇 차례의 태풍으로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높아진 하늘에는 조개구름이 흘러가고, 산천에 부는 바람도, 따스한 햇살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곳 청도군은 요즘 골골이 꽂같이 피어 있는 주홍색의 반시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으면 기슴까지 붉어지고 그 깊은 곳에서 풀벌레 소리도 여물어 갑니다. 가을의 풍광은 눈에 닿는 것마다 설법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정설법이라고 합니다. 당송팔대 문장가로 유명한 소동파에 얹힌 무정설법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시인 소동파는 말년에 형주고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고을 옥천사에 승호 선사라는 고승이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승호 선사의 경지를 시험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통성명을 하는데 소동파라 말하지 않고

“나는 칭秤가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칭이라는 성이 없기에

“칭가라니요?”

하고 선사가 다시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동파가,

“사람이 몇 근이나 되는지 달아보는 칭秤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선사는 “악!” 하고 할을 하면서

“이것이 몇 근이나 되는지 알려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소동파는 문장가이기 때문에 말이나 글로 경지를 겨뤄 보리라 짐작하고 있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외마디의 할을 하니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다시 소동파는 불인요원佛印了元 선사를 찾아가 설법을 청했습니다.

“이 우매한 중생을 위해 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자 선사는

“유정설법을 들어서 무얼하겠는가?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소동파는 말로 설해지는 유정설법은 알아도 무정설법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만 아득해져서 정신없이 말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곳을 지날 때, 갑자기 폭포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쏴’ 하고 들렸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무정설법을 들은 것입니다. 이때 환희에 넘쳐 깨친 소식을 전한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溪聲便是廣長舌 시냇물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설법이요.

山色豈非清淨身 산빛이 어찌 그대로 청정법신이 아니겠느냐.

夜來八萬四千偈 밤새 들은 팔만사천 법문의 그 소식을

他日如何舉似人 뒷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을까?

옛 조사스님들께서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 허공까지라도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항상 설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 이 가을에 무정설법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불살생계不殺生戒를 통해 본 불교의 생명윤리 ③

진광 / 운문사승가대학 학감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불교의 생명관
3. 불살생계와 불교의 생명윤리
- 4. 불살생계의 현대적 의미**
5. 나오는 말



4. 불살생계의 현대적 의미

우리 인류는 지금 인간성 상실, 생명질서의 파괴, 자연환경 파괴라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필자는 불교의 불살생계에 담겨진 생명윤리의 근본 가르침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불교의 불살생계의 윤리적 측면들이 현대 인간의 삶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깊은 고뇌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생명과 환경, 생태의 윤리를 거론한다

면, 즉 산업화·공업화에 따른 공기와 물(지하수)의 오염과 막대한 산업·공업 쓰레기 및 폐기물 발생, 핵폐기물의 문제, 유전자 조작, 생명복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간의 사망, 전쟁과 분쟁, 자살, 낙태, 부실 공사로 발생하는 재해와 자연재해(기상이변), 청소년의 입시위주의 교육 등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 가치관의 부재 등 모든 것들이 거시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⁴³⁾

생태적 위기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와 악육강식의 원리, 인간의 편리함, 소유욕과 탐욕, 생명의 실상에 대한 무지에 근거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불살생계의 의미는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가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방관하거나 따라 기뻐하거나 넘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거나 심지어 살생의 도구를 가지는 것조차도 살생의 범주에 넣어서 경계하고 있으며, 그 과보를 설하여 생명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존중사상은 유정물뿐만 아니라 무정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불살생의 정신을 공유할 수 있다면 생태계의 파괴는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너와 나 그리고 온 우주가 서로 의지하여 관계를 맺고 있다. 우주가 하나의 온 생명이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사상, 중생의 고통에 대한 자비심을 갖는 것이 인간의 지혜이다. 《유마경維摩經》에 보면 유마힐이 병문안 온 문수보살에게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만약 일체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나의 병도 낫습니다.”⁴⁴⁾라고 한 말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이사상不二思想에 근거한 것이다.

실로 불살생계에 담긴 참뜻은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 서로 돋고 서로 살리며 살아가도록 그대로 바라보아 주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생명 속에 숨겨져 있는 능력이 매몰되지 않도록 온전히 발현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불살생계는 또한 만물의 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은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업설과 윤회설의 관점에서 연속적·동체적 존재로 이해하며 동등한 의미를 갖는 평등한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것⁴³⁾이라고 하였다.

예컨대 불교에서는 ‘일미칠근一米七斤’이라는 말이 있다. 이 의미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쌀 한 틀의 무게가 7근’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 한 틀의 쌀에는 농부의 피와땀의 노력, 그리고 흙의 품어줌, 햇빛과 비와 바람의 조건들이 모여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한 틀의 쌀은 또 나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7근이라 한 것이다. 이렇게 무겁고 소중한 것을 함부로 버리거나 하찮게 여겨 낭비를 한다면 이것은 생명을 온전히 쓰지 못하는 것이요,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찰에서는 뜨거운 물은 하수구나 땅에 그냥 버리지 않는다. 미물들이 손상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나로부터 시작된다.

여기 자동차가 있다 하자. 자동차를 살리는 길은 그 자동차가 자기의 본성(굴려가는 성질)을 충분히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운전하고, 그 수명이

다해 폐차가 될 때까지 써 주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사고를 낸다든지, 수명이 다 될 때까지 쓰지 않고 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그 자동차를 살리는 길이 아니다. 하물며 살아 있는 생명에 있어서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즉, 자연과 인간이 생명의 구조 속에서 통일적으로 이해될 때, 우리는 인간 중심의 윤리에서 보다 확장된 생태중심적, 생명중심적 윤리체계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⁴⁴⁾

《유마경》에서는 십선十善을 실행하여 보살정토를 구현하고 그 마음을 조복하여 중생을 성취케 하면 불토가 청정하다고 하여 ‘심청정 국토청정 心清淨 國土清淨’⁴⁵⁾을 설하고 있다. 한 마음이 깨끗하고 선하면 온 국토(우주)가 청정하다는 의미이다. 불살생계의 생명윤리는 지금 지구적 차원에서 제기된 생태계, 생명, 환경의 위기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나오는 말

불교는 깨달음의 철학이며, 해탈의 종교이다. 철학적으로는 실재론과 운명론을 극복(무아설, 연

43) 최재목, 〈현대의 환경·생태 위기에 대해 과연 ‘동양철학적 접근’은 가능한가〉, 『크로스오버 인문학』(서울 : 장승, 2003년), 117쪽 참조.

44) 《유마힐경》 권상(대장장 제14권), 525쪽. 하단.

‘一切人病 是故我病 若一切人得不病者 則我病滅’

45) 안옥선, 〈업설에 나타난 불교 생명관의 한 특징 : 인간과 동물의 평등〉, 《철학연구哲學研究》 제89집(서울 : 대한철학회大韓哲學會, 2004년 2월), 244 ~245쪽 참조.

46) 김승철, 〈생명공학-생명윤리-종교〉, 《불교평론》 6호 (<http://www.budreview.com/html/6/6-nondan-kim-seung-chol.htm>), 2쪽 註4) 재인용.

윤영해, 〈불교의 생명이해 : 불교적 생명관의 현대적 이해〉, 《신학사상》 92, (1996년) 51쪽. 불교학자 데미언 키온이 불교의 기본적 선인 자비와 자제를 ‘생명’에 기초시켰을 때 그는 불교의 근본직관인 법을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본 것이었다. “생명은 선 그 자체이자 다른 선들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그는 말한다.

데미언 키온/허남결 역, 《불교와 생명윤리학》(서울 : 불교시대사, 2000년), 89쪽. 그래서 생명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의 표현인 아침사(비폭력)는 법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살생을 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향에 반하는 강제적인 제한이라기보다는, 연민에 의해 생물과 동화됨으로써 생긴 이상적인 결과이다.”라는 키온의 주장에서 우리들은 생명윤리의 문제가 곧 종교적 진리인 법의 문제임을 간추할 수 있다. 데미언 키온/고길환 역, 《불교란 무엇인가》(서울 : 동문선, 1998년), 153쪽.

47) 《유마힐경》 권상(대장장 제14권), 538쪽. 하단.

‘隨其心淨則佛土淨’

기설)하면서, 구체적 현실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사성제, 팔정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사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윤리적으로는 지악작선止惡作善의 도덕적 삶을 지향하며, 고행과 괘락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적 삶을 설하였다.

불교의 생명관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인간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이 세상 모든 살아 있는 것이 서로 연관되고 널리 통하는, 소위 공간적인 확대의 생명관이다. 그리고 생명이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생生으로부터 사死에 이르는 일회一回事에 그치는 것이 아닌, 무한한 과거로부터 무한의 미래에 걸치는 시간적으로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연기론적 사상과 업에 의한 윤회전생輪回轉生 내지는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대반열반경》에서는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⁴⁸⁾이라고 설하여 모든 살아 있는 것은 평등하게 불성佛性, 즉 부처가 될 종자를 간직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모든 생명의 평등성과 존엄성을 선언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사트바sattva’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유정有情 내지 중생衆生이라고 번역한다. 또는 마음의 움직임, 정을 가지고 있어서 유정有情이라고 번역하며, 중다衆多한 생사를 하기 때문에 중생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인간을 비롯하여 살아 있는 모든 것,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이다.

생명은 살아 있는 그 자체로서 자기의 전 존재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하루살이, 모기, 개미에 이

르기까지 다 하나의 생명체로서 소중한 것이다. 다만 업(karma : 행위)에 의하여 각기 다른 모습의 결과를 얻었을 뿐 생명이라는 데 있어서는 하나이다. 예를 들면 하루살이는 하루가 자기의 전 일생이다. 하찮은 생명이라 하여 함부로 해치거나 죽인다는 것은 그 생애에 대한 큰 불선不善이며 죄악이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한다(好生惡死). 살기 좋아하는 생명체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선善이며 복福을 짓는 것이며 자비이다. 불살생을 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교의 연기적 상호의존의 윤리는 어떤 행동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그 행동이 자신이나 남 혹은 양쪽 모두에게 해가 되느냐 아니냐와 열반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으며, 인간 스스로가 자기 행동의 책임자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불살생은 불교생명윤리의 근본이 되는 자비의 궁극적 실천이며, 불교의 근본사상이다.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고 할 때는 인간 생명의 보전만이 아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유기적 삶의 공동체 속에서 지향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기적 관계, 즉 인간의 독존적일 수 없는 연기론적 삶을 자각할 때 세상은 청정하고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불살생계는 ‘인간다운 길’에 대한 생명윤리요 규범이다. 불교 윤리는 또한 상황윤리⁴⁹⁾란 점에서도 기준의 윤리론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봇다는 업을 존재 결정의 한 요소로 간주하면서, ‘행위는 윤회의 밭, 의식은 씨, 욕망은 수분’으로 비유하였다.⁵⁰⁾

48) 《대반열반경》 권제19(대정장 제12권), 731쪽, 하단.

49) 불교에는 지법개처制闡遮라는 법이 있다. 즉 계율의 실천은 시대와 장소, 현실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올바른 견해와 지혜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50) 김종명, 〈초기불교의 사상·윤리성에 비추어 본 한국불교〉, 《불교평론》 제17호(서울 : 불교시대사, 2003년, 가을), 31쪽 註 43) 재인용.

또한 불교의 연기적 인간관은 근대 서구 사회의 인간관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개인주의와 폐쇄적 공동체주의,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우주적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의 상호 존중성과 포용성은 현대사회에서도 보편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삶과 자연존재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불교의 사유체계는 환경문제와 생명윤리 그리고 환경생태학⁵¹⁾ 측면에서의 기여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

〈 참고문헌 〉

- 《잡아함경》 권제12 (대장장 제2권)
- 《범망경보살계본소》 권제1 (대장장 제40권)
- 《범망경》 제10권하 (대장장 제24권)
- 《유마힐경》 권상 (대장장 제14권)
- 《대반열반경》 권제19 (대장장 제12권)
- 법총 편역, 《개율강요》, 서울 : 우리출판사, 1994년.
- 데미안 키온 지음, 하남결 옮김, 《불교와 생명윤리학》, 서울 : 불교시대사, 2000년.
- 최재천 엮음/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기획연구실 기획, 《과학 종교 윤리의 대화》, 서울 : 궁리, 2001년.
- 최재목, 《크로스오버 인문화》, 서울 : 장승, 2003년.
- 법륜, 《불교와 완경》, 서울 : 정토출판, 1998년.
- 진교훈, 《철학적 인간학 연구(Ⅰ)》, 서울 : 경문사, 1982년.
- 일본불교학회편, 《불교의 생명관》(일본 : 경도, 평택사사점, 1990년)
- 미즈하라 **슌지** 지음/이호순 옮김, 《과학시대의 불교》, 서울 : 대원정사, 1986년.
- 안옥선, 〈업설에 나타난 불교 생명관의 한 특징 : 인간과 동물의 평등〉, 《철학연구》 제89집(서울 : 대한철학회), 2004년 2월)
- 윤호진, 〈생명공학의 도전에 직면한 불교의 윤화설〉, 《불교평론》 제4호(서울 : 불교시대사, 2000년 가을)
- 이중표, 〈불교적 입장에서 본 생명공학의 윤리 문제〉, 《불교평론》 제4호(서울 : 불교시대사, 2000년, 가을)
- 최원상, 〈생명공학의 현재와 미래〉, 《불교평론》 4호, (서울, 불교시대사, 2000년, 가을)
- 김승철, 〈생명공학-생명윤리-종교〉, 《불교평론》 제6호
- 양형진, 〈과학으로 보는 불교의 중심사상〉, 《불교평론》 제11·12호 합본(서울 : 불교시대사, 2002년, 여름 · 가을)
- 김종명, 〈초기불교의 사상 · 윤리성에 비추어 본 한국불교〉, 《불교평론》 제17호(서울 : 불교시대사, 2003년, 가을)
- 정승석, 〈생명복제에 대한 불교적 반성〉, 《동서철학연구》 제30호(대전 : 한국동서철학회, 2003년 12월)
- 윤영해, 〈불교의 생명이해 : 불교적 생명관의 현대적 이해〉, 《신학사상》 92, 1996년.
-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제3판, 서울 : 민족서림, 1998년.
- 한글학회 지음, 《우리말 큰사전》, 서울 : 어문각, 1992년.
- 영본학술재단 편집, 《범화대사전》(동경 : 강담사, 1979년)

51) 불교와 생태학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불교문화연구원, 《불교와 생태학》,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봉축 학술세미나(2003년 5월 2일) 논문집 참조.

해외 현장학습을 통해서 알아 본 미국 불교

지정 / 국제불교학교 교학처장

올해 초 학교 학생 9명을 이끌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디씨와 뉴욕시 지역을 중심으로 5주간의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학교가 명실공히 종단의 국제포교를 위한 교육기관이라 해외의 불교계를 살펴보고 서구문화를 직접 접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

삼십 이년 전 미국서 대학 다니던 시절 종교적 관심이 아닌 단순히 상식을 쌓기 위해 불교가 무엇인지 알아보려 인근의 한국 절을 찾아간 것이 나와 불교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 당시 워싱턴디씨 인근엔 한국스님으론 단 한 분의 비구스님(내겐 첫 온사스님) 고성 스님께서 메릴랜드에 ‘한국사’라는 절을 개산하고 한국인 법회와 미국인 참선 법회를 통해 포교를 하고 계셨다.

옛 기억을 떠올리며 이젠 칠십을 훌쩍 넘기신 첫 온사스님의 절 워싱턴 한국사에서 3주간의 시간을 머물렀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각국의 사찰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듣고 현지 미국인들의 법회에선 함께 참선하는 시간을 갖고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명 ‘다종교승가’ 와의 만남도 가졌다. ‘다종교승가’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참선수행을 통해 자신들의 종교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수행공동체이다. 이렇듯 미국에서 승가란 ‘수행자들의 모임’을 말하며 사부대중을 포함한다. 승(스님)보다 재가 수행자의 숫자가 월등히 많다 보니 재가자가 리드하는 승가가 훨씬 더 많다. 우리가 만난 다종교승가의 리더는 가톨릭 수녀였다. 백발의 칠십을 넘긴 그녀는 40년 넘게 선수행을 해왔다고 했다.

그리고 타종교간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모든 이들의 내면에 내재한 신을 ‘빛’으로 표현하는 퀘이커교도들과의 만남이 그것이었다. 그들은 ‘신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 하여 모임에서 누군가가 그날의 리더 역할을 한다. 그들은 교회를 갖고 있지 않고 집회를 학교 강당에서 했으며 15분간의 침묵 명상으로 그날의 집회를 시작한다. 집회 후 그들과의 대화시간에 우린 서로의 닮은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뉴욕에선 종단이 최초로 지정한 해외특별교구 본사인 뉴욕 주의 불광선원에서 2주간 머무르며 뉴욕시내의 다양한 선 센터를 탐방하고 우리 종정스님께서 만났던 세계적인 신학대학, 뉴욕 유니언 신학대학교의 신학자 폴 니터 교수와 세계평화위원회의 위원이며 한국인 여성 신학자인 정현경 교수와 대담 시간을 갖기도 했다.

미국불교는 크게 남방불교와 선불교, 티베트불교 그리고 턱낫한 스님의 마음 챙김(마인드풀니스) 명상으로 나뉜다.(혹은 턱낫한 스님의 명상수행을 선불교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부 불교는 각각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불교를 ‘수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불자들에게 불교는 곧 생활이다. 그들은 재가자 오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일과에 집중수행시간을 갖고 있다. 채식은 기본이고 금주, 금연 그리고 명상수행을 실천한다. 불교 역사가 천오백년이나 되는 우리 한국불교에서 볼 수 있는 비불교적非佛教的인 여러 가지 관습과 신행과 달리 미국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주 명료하고 실천적이다. 그리고 그들은 부처님의 또 다른 표현인 자비와 평등 정신을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즉, 미국의 재가 불자들은 환경이나 인권 등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연주의자이며 평화운동가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미국의 사찰들은 아직 운영에 있어서 신도들에게 의지할 만큼 신도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님들도 직장을 갖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국인들로 이루어진 승가는 거의 다 그렇다. 다만 수행을 위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승가를 유지해 나간다. 또한 많은 승가는 사찰이 없어 수행공간을 따로 빌리거나 교회 공간을 빌려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참선수행을 한다.

한편 대부분의 이런 실정과 달리 우린 미국에서 턱낫한 스님의 큰 그림자를 발견했다. ‘마인드풀니스 센터’로 이름 붙인 턱낫한 스님의 제자들이 수행하고 가르치는 명상센터가 미국 전역에 백여 군데 넘게 있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뉴욕시에서 1시간 30여분 근교에 위치한 블루클리프 상가공동체(Blue Cliff Monastery)를 방문하여 그곳의 1박2일 마인드풀니스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곳은 프랑스 플럼빌리지(Plum Village, 자두마을)에 이어 2007년 전 세계에 세워진 여러 베트남 수행공동체들 중 한 곳이다. 우린 이곳에서 이상적인 불교수행공동체의 모델을 보았다. 어떠한 공동체건 문제는 있기 마련이지만 생활과 수행이 잘 접목된 모습으로 상당히 이상적인 형태라 생각했다.

이러한 미국불교 체험 가운데 우리에게 이색적으로 보였던 미국불교의 한 면모는 ‘불교적 기독교인 또는 기독교적 불교인’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더블 비롱잉(double belonging)’이라 표현한다. 즉, 타종교를 가지고 있으나 불교적 수행을 통해 자신들의 종교를 더 깊이 이해하고 완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서, 인구에 비해 극소수이지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폴 니터 교수와 정현경 교수 ‘더블 비롱잉’에 속하는 대표적 예이다. 그들은 참선수행을 통해서 그들의 무형의 신에게 가까이 간다. 또는 불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수행의 목표를 삼는다.

미국의 불교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받아들인 불교와 미국인 학자들이 전파한 불교 그리고 충산 스님처럼 미국에 포교하기 위해 찾아온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선사들을 비롯하여 남방불교 스님들은 다양한 수행 방법을 미국에 소개했다. 그 결과, 다민족 다문화의 나라인 미국엔 지금 불교가 그 다양성을 띠고 각기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 우리의 여러 어른 스님들께서 100년 후 불교는 미국에서 꽃을 피울 거라고 하셨던 말씀을 새삼 떠올리며 내가 직접 보지는 못할 그 시대를 이타적이고 따뜻한 아름다운 사회로 상상해 본다. ☺



수행자의 발우 레시피

호현 / 사교파

세속의 번뇌로 물든 발우를
계·정·혜 삼학의 맑은 천수로 행군 뒤 천수발우에 머무르게 둔다.

농부의 피와 땀으로
굳건한 신심으로 잘 품들여진
소중한 공양을 수복이 한 주걱 어시발우에 담는다.

그런 뒤, 대중의 화합으로 잘 우려낸 국을
아낌없이 두국자 국발우에 한가득 담는다.

아집의 억세고 질긴 줄기는 가차 없이 뜯어내고
부드러운 어린 잎을 원력의 힘으로 조물조물 잘 무친 나물은 찬발우에 담고,
조사스님의 어록으로 잘 버무려 숙성된 김치 한 조각도 함께 담아둔다.

공양 후, 좌절과 절망을 잘 우려낸 쌈싸름한 승늉에
김치로 발우를 닦아 고통으로 변한 승늉을 기꺼이 단숨에 마셔버린다.

머무르던 삼학의 천수로 잡념이 남아 있는 발우를 닦은 뒤,
아귀에겐 자비와 사랑을 보태서 깨끗한 삼학을 보낸 뒤,
남은 잡념은 내가 한 번 더 마셔서 참회라는 소화기관을 통해 소화시킨다.

직녀의 수고로움이 깃든 발건으로 한 방울도 남김없이 깨끗이 닦은 뒤,
중생에서 공空으로 변한 발우를 깨지지 않게 꼭꼭 동여매서 완성시킨다.

눈먼 거북이 먼바다에서 구명 난 나무토막을 만나듯
이것이 이 말세에 진정한 발우 레시피가 아닐까? ●

금강역사金剛力士 (Vajrapāṇi)는 어디에 서 왔을까?

심재관 / 상지대학교

‘바즈라빠니’ 라 불리는 금강역사는 본래 누구였을까. 이 불교의 수호신은 불교미술과 문헌 속에 갑자기 뛰어든 돌발적인 인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불교의 신장神將은 어디에서 기원한 것일까. 불교의 다른 신중神衆과 같이 힌두교에서 유래한 것일까. 아니면 또다른 기원을 갖는 신일까.

바즈라빠니vajrapāṇi/vajradhara(執金剛/金剛力士)에 대한 연구는 그륀베델이나 올덴베르그 등에 의해 20세기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거의 백여 년의 연구사를 갖지만 여전히 그 정체와 기원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푸쉐A. Foucher와 라모뜨E. Lamotte를 비롯해서, 최근까지도 산토로Santoro와 타나베 카츠미(田辺勝美), 임영애 등에 의해 연구가 시도된 바 있지만, 아직 의문은 산재해 있다.

미술사적으로 보자면, 금강역사의 초기 모습은 매우 흥미롭게도 그리스의 영웅신 헤라클레스의 모습을 빌리고 있다. 그리스의 영웅신이 불교 속으로 유입된 것은 불교를 받아들였던 그리스인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기원전 2세기경에 박트리아 왕조의 왕들인 에우티데모스Euthydemos 1세나 데메트리오스의 주화에 헤라클레스의 모습이 등장한다. 주화 속의 헤라클레스는 대체로 손에 곤봉을 들고 사자가죽을 신체에 착용하거나 지니고 있는 모습을 띤다. 헤라클레스의 사자가죽은 네메아에서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사연에서 기인한다. 이 박트리아인들이 불교를 숭상하였다는 증거는 적지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림1〉 박트리아 왕조의 왕들인 에우티데모스 1세나 데메트리오스의 주화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의 모습.

이러한 경향은 후비슈카Huvishka의 동전에서 보듯이 쿠샨제국까지 지속된다. 한 금화에는 ‘hPakilo’(Erakilo) 헤라클레스라고 적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자신

들에게 친숙한 ‘바즈라빠니’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간다라 지역에서 불전부도와 불상의 제작이 시작되면서 불상과 함께 바즈라빠니도 등장하는 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지역에서 조성된 바즈라빠니의 상당수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스의 영웅신 헤라클레스와 불교의 신장인 바즈라빠니를 연결시키는 고리는 몇몇의 중요한 도상들인데, 대표적으로 핫다Hadda¹⁾의 테페 쇼토르Tepe Shotor 등에 나타나는 헤라클레스-바즈라빠니가 그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리시포스Lysippus 스타일의 그리스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왼쪽 어깨에 사자가죽을 걸치고 오른손으로 바즈라를 잡고 있다.

학자들은 이와 같이 바즈라를 지닌 채 봇다를 옆에서 수호하는 존재들을 바즈라빠니라고 불러왔다. 본래 불교의 신장인 바즈라빠니를 조각하면서 간다라의 조각가들이 헤라클레스의 이미지를 덧씌운 것이라 본 것이다.

다시 말해, 별도의 독립적인 신격으로 바즈라빠니를 먼저 설정해 놓은 것이다. 그 이유는 경전 속에 바즈라빠니가 봇다를 호위하는 전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학자들은 불경 속에 본래부터 바즈라빠니가 존재했었고 그 경전 속의 모습을 조각으로 재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온 것이다.



〈그림2〉 핫다의 테페 쇼토르에 있는 헤라클레스-바즈라빠니. 오른쪽 손으로 바즈라를, 왼쪽 어깨에 사자가죽을 걸치고 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으로 파괴되었다.

그렇다면 바즈라빠니는 언제 하나의 독립적인 신격으로 (문헌이나 도상에) 등장한 것인가.

vajrapāni(바즈라를 지닌 (자))라는 이름이 인도 땅에서 불교가 등장하기 전에 통용되었는가라는 질문에도 역시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베다 문헌들에서도 ‘바즈라빠니’라는 명칭은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 이름은 《사드빙샤 브라흐마나Sadvimśa-Brahmaṇa》와 같이 상당히 후대의 베다 문헌 기에 인드라Indra의 별명으로 처음 등장하기 때문이다.

불교 이전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베다 문헌들에서 바즈라빠니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으며, 인드라의 별칭으로도 바즈라빠니보다 바즈라하스타vajrahasta가 더 자주 사용되었다.

따라서 베다 문헌에 간헐적으로 사용된 바즈라빠니라는 말은 인드라의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단어를 단독으로 사용해 어떤 독립적 신격을 지시하는 경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대체로 불전佛典 내에서도 동일한데 따라서 불교 이전에 바즈라빠니가 독립적인 신격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1) 아프가니스탄 동부에 있는 3세기에서 7세기 사이의 불교 유적지. 1920년대 프랑스의 고고학 조사단이 발굴한 것으로 불교 건축물과 소상塑像 조각이 많이 나왔다.

불전부도佛傳附圖에서 보이는 것처럼 봇다의 수호신/수행자 역할을 하는 독립적 신격의 모습은 대체로 쿠샨 왕조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방광대장엄경Lalitavistara(A.D. 3~4세기?)》, 《대사》,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불소행찬》 등에 드물게 나타난다. 이 경전들에는 간다라 미술에 나타나는 불전부도속의 바즈라빠니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매우 경미하게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불전 자료보다 도상 자료에서 인드라와는 구분되는 독립적인 신격으로 등장하는 바즈라빠니를 쉽사리 만날 수 있다.



〈그림3〉 A.D. 1~2세기경. 간다라 로리얀 탄가이 출토. 캘카타 인도미술관. 출가유성의 장면. 말을 탄 싯타르타 앞쪽에 ‘바즈라를 든 인드라’가 있고, 머리 뒤쪽 위로 ‘또 다른 바즈라를 들고 있는 바즈라빠니’가 있다.

간다라의 로리얀 탄가이Loriyan tangai에서 발굴된 출가유성出家蹟城 불전부도는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만한데, 동일한 화면에 인드라와 바즈라빠니가 동시에 묘사된 것으로 미루어 두 존상이 당시에 각각 독립된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존재의 의상과 지물도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귀족적인 의복을 입고 가늘고 양쪽 끝이 뾰족한 바즈라를 들고 있는 인드라와, 별거벗은 상반신에 뭉툭한 바즈라를 들고 있는 바즈라빠니가 대조적으로 보인다. 이 도상의 대략적인 조성 시기를 신뢰할 수 있다면 이는 간다라 지방의 조각가들이 이미 바즈라빠니와 인드라를 구분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기 미술사학자들이 바즈라빠니를 인드라의 파생적 존재쯤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오해인 듯 보인다.

학자들이 간다라의 바즈라빠니 도상을 해석하면서 보여주는 무비판적 전제는 헤라클레스-바즈라빠니가 인드라의 자리를 대체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인드라가 베다 초기문헌부터 바즈라를 무기로 삼고 있었으며 후대에는 그에 걸맞게 바즈라다라vajradhara나 바즈라빠니vajrapāṇi 등의 별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이는 너무 명확한 사실이므로 여기서 별도로 예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간다라 조각에서도 헤라클레스-바즈라빠니가 대부분 인드라의 지물인 ‘바즈라vajra’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유사한 상당수의 헤라클레스-바즈라빠니 도상 속에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간다라의 바즈라빠니가 왜 ‘바즈라’를 들고 있는가를 해명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의문은 통상 ‘바즈라’가 힌두교의



전투신인 인드라의 소유물이라는 일반화된 통념을 쉽게 벗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박관념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헤라클레스-바즈라빠니가 인드라를 매개로 불교로 편입되는 과정을 설정한다.

뿐만 아니라 ‘바즈라 = 인드라의 소유’라는 등식을 통해 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습관을 갖는데 이는 더 부담스러운 노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간다라 불전 조각 속의 바즈라빠니가 들고 있는 ‘바즈라’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인드라를 전제하지 않고 곧장 헤라클레스를 연결시킬 수 있다. 바즈라빠니가 곧 헤라클레스인 셈이다. 이 두 존재를 연결하는 매개는 그들의 지물인 ‘바즈라’이다.

주지하다시피, 바즈라는 인드라와 마찬가지로 인도-유럽파언 공동의 유산이다.

산스크리트어 *vajra*는, 아베스타어 *vazra*, 펀어 *vasara*, 토카리아어 *wasir / wasīr*와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한 단어로 이들 단어는 ‘깨부수는 것’, ‘곤봉’, ‘몽둥이’ 등의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인도-유럽파언의 공동조어 **uagros*가 구성되면 이러한 관점에서 인드라의 바즈라나 헤라클레스의 몽둥이는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바즈라빠니가 인드라를 대신한 것이라는 관점은 너무 왜소한 해석처럼 느껴진다.

본래 헤라클레스의 곤봉은 소위 ‘뽕달린’ 혹은 ‘울퉁불퉁한’ 방망이인데(앞쪽 주화속에 보이는 헤라클레스의 방망이와 같이) 인드라나 바즈라빠니의 방망이(바즈라)는 앞의 그림에서 보듯이 짤막한 아령이나 곤봉 형태를 띤다.

고대 인도의 바즈라는 도상적으로 그리스식 ‘뽕(*τραχύ traxy*)’이 보이지 않을 뿐이고 ‘뼈다귀’ 형태의 바즈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본래 그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스 뽕’과 ‘인도의 뼈다귀’는 도상으로만 차이가 있을 뿐 문헌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리그 베다Rig-veda》는 바즈라를 “천 개의 뽕이 달린” (*sahasrabhr̥stih RV.1.80.12*)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헤라클레스의 지물과 인드라의 지물 사이의 친족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상과 같은 몇몇 관점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간다라를 중심으로 한 고대 인도 북서부 지역에서 일종의 헤라클레스 컬트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치 코탄Khotan에서 비사문친 신앙이 민간에서 유행했던 것처럼, 간다라 지역을 중심으로 헤라클레스 컬트가 있었고, 이러한 현상의 파급으로 불교가 헤라클레스를 수용해 호법신장으로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다. 헤라클레스-바즈라빠니의 모습이 거의 간다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곤봉’을 들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명칭은 당연히 ‘인도식’ 표현법으로 ‘바즈라빠니’가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은 고유명사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성된 조각들은 점차 불교 승려들에게 영향을 주어 후대의 불전문학에 새로이 등장한 바즈라빠니를 등장시켰을 것이다. 이점은 왜 후대의 불전 속에서야 바즈라빠니가 독립적인 신격으로 겨우 등장하고, 또한 불전 조각과는 달리, 불경 속에서 그 역할이 매우 위축되어 표현되고 있는 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바즈라빠니는 도상이 텍스트에 영향을 준 특별한 하나의 사례인 셈이다. ●

스님, 잘디 잘디!

법진 / 대교파



한반도의 16배, 인구는 12억 명에 해당하는 거대한 나라 인도. 우리는 부처님 8대 성지를 돌기 위해 15일이라는 시간 동안 인도순례를 다녀왔다. 흔히들 인도성지 순례는 ‘불교’라는 종교가 사라진 땅에서 그 자취를 돌아보는 것이라 말한다. 인도에 대해서 다 알려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이었지만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결코 불교가 사라진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각자의 가슴속에 다시금 각자의 성지에서 느꼈던 작은 환희심을 짹틔워 돌아왔다.

첫째 날, 첫째도 신심중장 둘째도 신심중장을 들으며 우리는 인천 공항으로 출발한다. 출국수속 후 8시간가량 비행기를 탄 후 처음 도착한 곳은 인도에서 가장 큰 공항인 뭄바이 국제공항. 하늘에서 일박을 한 샘이다. 도착시간은 새벽1시경.

이틀째, 뭄바이 기차역으로 이동 후 특급열차에 일명 닭장 칸이 아닌 유일한 에어컨 칸을 타고 만마드역으로 향한다. 점심식사는 거리에 있는 인도의 기사식당이라는 곳에서 콩으로 만든 달과 짜파티로 했다. 첫날부터 맛없는 달과 짜파티를 썩쓸이하는 분들은 처음 봤다며 놀라는 여행사가 이드인 사장님의 말에 현지 적응이 빠른 우리는 첫 식사를 만족해하며 첫 번째 순례지인 엘로라 석굴에 도착했다. 600년~1000년 동안이나 판 엘로라 석굴은 다종교 석굴사원이다.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3종교의 석굴을 모두 볼 수 있다. 12개의 불교 석굴 가운데 10번 석굴만 ‘차이티야 Caitya’

라는 예불당이고 나머지는 ‘비하라 Vihāra’라는 승방 터이다. 10번 굴에서 우리는 첫 예불을 모셨다. ‘신심중장!’을 다시 한 번 새기며 경건한 예불을 마치고 내려와 또 다른 석굴을 보기 위해 오랑가바드로 향한다. 그렇게 인도에서의 이틀이 지나간다.

삼일째, 아잔타 석굴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출발한다. 약 800년 동안이나 됐다는 아잔타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 장관에 넋을 놓고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큰 바위산의 측면에서 통째로 파서 만든 거대한 불교 석굴사원. 다시금 부처님의 위대함에 고개가 숙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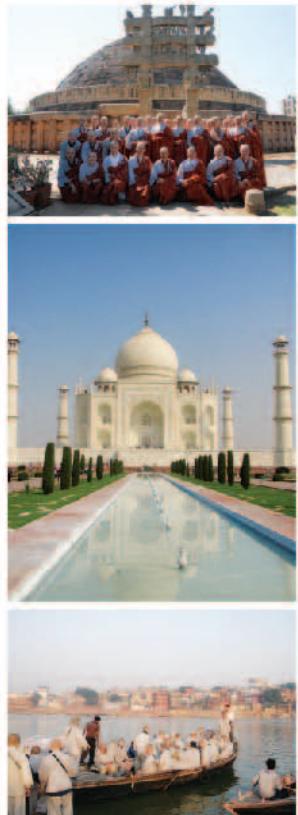
아잔타 석굴은 8세기 이후 불교가 쇠퇴하면서 1100년 동안이나 밀림의 숲 속에 숨겨져 있었는데 호랑이 사냥을 나온 영국군에 의해 우연찮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아잔타의 정교한 벽화나 조각들은 통째로 뜯겨져나간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바로 영국군이 약탈해간 흔적이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채 보존되었더라면 정교하고 아름다웠을 생각을 하니 상상으로만 그려야 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하지만 잠시 후, 책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 유지한 그 유명한 연화보살상의 생생한 표정과 색채를 보자 탄성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플래쉬에 비출수록 섬세함이 살아나 마치 살아 있는 보살을 친견하는 것처럼 정교했다.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나니 우리의 현지가이드 쟁이 외친다. “스님, 잘디 잘디!” 한국의 ‘빨리 빨리’와 같은 말이다. 혹여나 한 명이라도 뒤처질까 여기저기 살피는 쟁의 수고가 늘 고맙고 미안하다. 중요 석굴을 모두 둘러보고 다시 올 수 있기를 기슴속에 염원하며 산을 내려왔다. 시간이 가고 있음을 아쉬워하며 하루가 또 지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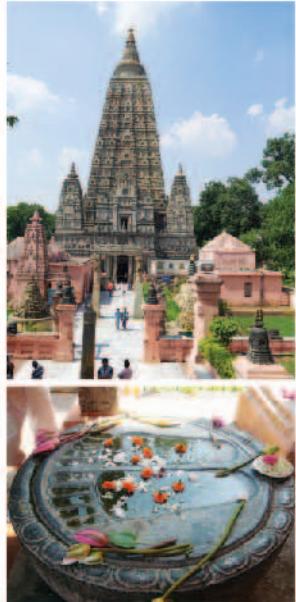
사일째, 순례지는 산치대탑. 산치대탑은 살육의 왕으로 불렸던 아소카 대왕이 불교에 귀의하고 바로 세운 부처님 사리탑이며, 아소카 대왕이 자신이 짊은 시절 사랑한 데비라는 여인을 기리며 세운 탑이기도 하다. 사리탑을 돌며 기도를 마친 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리석 건물인 타지마할을 보기 위해 특급 열차를 타고 아그라로 이동한다.

오일째, 무굴제국의 황제였던 사자한이 왕비 뭄타즈마할을 위해 22년간 지은 결작. 시공을 초월한 사랑의 결정체라고나 할까. 연간 이십만 명의 인부가 대동되고 세계의 보석을 수입하여 대리석 무늬 하나하나 박아 넣은 기술로 완성된 무덤. 너무 많은 국고를 탕진한 덕분에 사자한은 자신의 아들에 의해 아그라성에 갇히게 되고 결국 타지마할에 왕비와 나란히 묻힌다. 이쯤 되니 솔솔 피로가 누적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피곤은 우리의 자연스런 친구가 되었다. 즐거운 피곤함이라고나 할까. 괴로운 피곤함은 힘이 나질 않으니……. 즐거운 피곤함을 원동력 삼아 다시 남은 여정을 위해 떠난다.

육일째, 많은 곳을 순례했지만 정식으로 첫 부처님 성지를 뵙는 셈이다. 바로 상카시아대탑. 상카시아대탑은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올라가 3개월간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법을 설한 후 하강하신 곳으로 하늘과 인간을 잇는 성징적 의미를 지닌 장소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정작 도착해보니 유적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폐허 같은 탑 위에는 힌두사원이 있었다. 성스러운 부처님 성지 위에 세워진 힌두사원을 보자니 씹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첫 성지인 만큼 빠트릴 수 없는 기도를 시작한다. 금강경 독송을 마치고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강인 갠지스 강이 있는 바라나시로 이동한다. 우리 순례기간과 힌두교 축제기간이 겹치는 바람에 엄청난 도로정체가 시작됐고 결국 장장 13시간 가량 버스를 탄 끝에 겨우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다.

칠일째, 새벽 일찍 갠지스 강의 일출을 보기 위해 출발한다. 한쪽에선 목욕을 하고 한쪽은 빨래를 하며 한쪽은 기도를 하고 한쪽은 시체를 태워 강에 뿌리고 있는 바라나시는 인도사람들 삶의 한 부분이자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남은 여생을 사는 사람들의 집이었다. 갠지스 강에서 보탕하며 일출을 본 뒤 상기를 빼져나오던 중 시체 두 구를 만났다. 모두 화장하기 위해 갠지스 강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죽음이 느껴질 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기꺼이 바라나시로 간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듯, 이들의 삶도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바라나시를 떠나 다시 도착한 성지는 초전법륜지인 사르나트. 5비구에게 설법하셨던 부처님을 회상하며 다시 기도를 드린다.

팔일째. 불교성지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처님께서 6년 고행 끝에 성불하신 부다가야. 부다가야 대탑은 이슬람교 침입 때 파손을 막기 위해 불교도들이 52m나 되는 대탑을 흙으로 덮어서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고 한다. 부처님 성지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후대사람들이 온전히 부처님 성도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뒤처지는 무리가 생기자 어김없이 들려오는 쟁의 목소리. “스님, 잘되 잘되!” 인도에 와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인도사람들은 한국사람보다 ‘빨리 빨리’ 를 더 많이 외친다는 것. 그 덕분에 인도여행 내내 지각 벌금은 일절 없었다.

구일째, 라지기르로 떠난다. 세계최고 최초의 불교대학이었던 나란다대학은 대승불교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중관학과 유식학이 뿌리를 내린 곳이다. 학인스님만 10000명, 교수진만 1500명이었다고 하니 가히 그 교육열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 나란다대학은 이슬람의 침입으로 인해 학인은 모두 학살당하고 대학은 삼개월 동안이나 됐다고 한다. 아직도 불에 탄 자리가 남아 있을 정도이니 그때의 화재가 얼마나 커졌는지 상상도 못할 일이다. 현재까지 발굴한 터는 1/4에 불과하다는데 ‘그때의 그 세계최고 불교대학이 지금까지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쯤이면 온 세상이 불국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듦다. 어쩌면 미래의 나의 강원이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법화경을 설하신 영축산을 오른다. 바로 그 ‘영산회상’이다. 영산회상을 직접 보니 불법 만났음에 또 한 번 감사함을 느낀다. 불교 최초의 정사 죽림정사를 참배하고 다시 바이샬리로 떠난다.

열흘째, 부처님께서 삽발염의하시고 가사를 수하신 불교 최대의 탑인 캐사리야 대탑에 도착한다. 조금만 걸어서 이동하는 구간이 있으면 구걸하는 아이들과 상인들이 따라붙기 시작한다. 한국 스님들은 돈 많기로 유명하다니 이들에게는 우리의 방문이 대환영일 것. 아이들은 연꽃 한 다발씩 들고 외친다. “거룩한 부처님께 원 달러~” 결국 거룩한 부처님께 원 달러의 거래는 성립되고 연꽃을 탑에 공양했다. 우리는 삽발염의한 곳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쿠시나가르로 다시 떠난다. 바로 부처님 열반지이다. 부처님께서는 32상 80종호를 갖출 수 있게 도운 수자타의 공양과 몸 상태를 더욱 악화되게 만든 춘다의 공양이 같은 공양이라 여기시고 춘다의 공양을 다 드신다. 그리고 8정도와 중도를 설하신 뒤 마지막 제자인 수바드라까지 아라한을 득과하게 하고 곧 열반에 드신다. 대열반



당에서 부처님 열반상을 뵙자 참지 못할 슬픔이 느껴졌다. 백천만겁이 지나도 부처님 만나 뵙기 어려운 것에 대한 서러움이었을까. 부처님 재세시의 열반이 가슴으로 느껴져서일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자 열반상 앞에서 부처님 제자로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염원했다.

다비 터까지 돌아보고 십일일째. 부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계셨던 기원정사로 간다. 바로 금강경이 설해진 무대이기도 하다. 기원정사의 건립은 기타 태자가 보시한 원림에 수단타 장자가 보시한 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기타 태자의 ‘기수’와 수단타장자의 이름인 ‘급고독’을 합쳐 ‘기수급고독원’이라 한다고 한다. 기수급고독원의 참배를 마치고 한국사찰

인 천축선원으로 갔다. 한국사찰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인도에서 아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고 원력을 이루기 위한 신심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인연을 만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인도에서의 순례는 이곳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 성지인 룸비니를 가기 위해 십이일째, 네팔국경을 넘는다. 룸비니에 도착해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기 직전 내딛으셨던 첫 발자국을 친견한다. 부처님 8대 성지를 모두 친견하고 남은 것은 네팔의 안나푸르나. 바로 히말라야 설산으로 향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트레킹하는 히말라야 설산. 우리 화엄반 인원이 트레킹하면 네팔인 15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안나푸르나의 뜻이 안나는 ‘조식’, 푸르나는 ‘봉우리’라고 한다. 즉, ‘아침을 먹여주는 봉우리’라는 뜻. 히말라야의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 일찍 사랑곳까지 오른다. 전날 많은 비가 내린 덕분에 일 년에 한 두 번 있다는 굉장히 평창한 날씨에 선명한 히말라야 일출의 장관을 볼 수 있었다. 네팔의 여러 관광지까지 둘러보고 우리의 일정은 점점 마무리 되어 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되었는지 이해가 된다. 모든 것이 공존하는 나라, 모든 종교가 두루 있는 나라, 소유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나라, 삶과 죽음이 하나인 나라, 그곳이 인도였다. 인도 전체가 불교를 말하고 있고 보여 주고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부처님 법 아닌 곳이 없었다. 누군가에게는 종착지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지인 인도. 우리에게 인도는 불교를 느끼고, 온 가슴속에 신심을 일으켜준 새로운 출발지였다. 그런 인도에게 인사를 건넨다. 나마스테 인도, 단네밧 인도!

그리고 힘든 여정을 함께 해 온 소중한 도반스님들 모두 단네밧! ☺



빈손으로 가는 여유로움

김승광 / 재기불자



중요한 메모를 해 두었다가 찾는데
한참이나 걸렸던 경험이 있어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
나의 옷들엔 주머니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었지.

바지에서 티셔츠, 스웨터까지
수많은 주머니들을 일일이
들쳐보느라 당황스러웠던 경험.

이 주머니들이
내가 성장하고 사회에 길들어가면서 갖게 되는 욕망,
욕심이라는 주머니가 아닌가 하고
비추어 보았어.

어린 시절엔
최소한의 것으로도 만족하던 것이
이제는 자꾸 더, 더, 라는
소리만을 외칠 뿐
쉽게 만족할 줄 모르는 나의 주머니.

인간이
태어나서 마지막에 입는 옷,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던데.

이제 마음의 욕심이란 주머니를
헐거이 모두 비워내고
그 없음의 여유로움으로 살아가고 싶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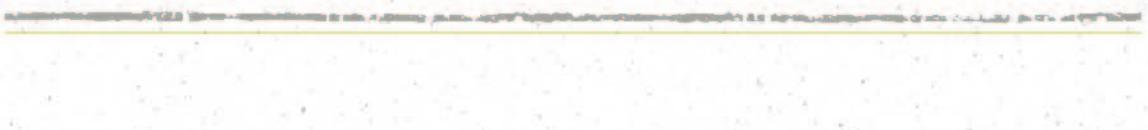
心月相照

현사 / 사집과



내 손이 절 만한 것

장석남 / 시인, 한양여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지난 여름 시골집 축대 위 서너 아름 될까 한 터에 나서 편 채송화가 하도 좋아 그 씨앗을 받아 볼까 한다. 좁쌀보다도 더 작은 씨앗들이다. 어디가 눈인지 뭔지 모르게 작은 씨앗들이 조밀조밀 박혀 있는데 그 것을 다루기에 내 손은 너무 거대하다. 생각해보니 이 손은 모든 식물들의 씨앗을 다루는 데 너무 크다. 배추씨며 양파씨며 쑥갓의 씨며… 이 손이 할 만한 일을 생각해 본다. 부귀를 절 수 있는 손일까? 사랑을 줘는데 적당한 크기일까? 사랑은 이 채송화 씨앗만한 것이어서 내가 다루기엔 너무 어려운 것인지 모른다. 권력을 줘는데 맞을까? 손을 물끄러미 한 순간 들여다보았다. 손은 시무룩하다.

한 숟가락 정도만 모아도 두어 평은 다 심겠는데 이 작은 씨앗을 모아 둘 데를 생각해본다. 어디 모아 둔다고는 해도 내 건성건성한 성격으로 내년 봄에 이것들을 찾아 다시 뿌린다는 게 자신이 없다. 자주 색이며 분홍이며 보라며… 아침 저녁의 선선한 기운 속에서 피어나는 여러 색깔들의 오밀조밀한 어울림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여간했었는데 내년에 다시 나오려나? 기약은 없지만 그대로 손바닥에 모으던 씨앗들을 흘뿌려놓고 만다. 내년에도 보았으면 좋겠다. 기원을 담긴 했지만 그것은 그것의 섭리로 날 것이고 나는 그것들이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고 해도 까맣게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어린 날의 고향 사투리를 잊듯이.

나는 학교에서 스무 살 남짓한 학생들과 시를 공부하며 밥을 번다.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그 친구들을 제자라고 부른 적은 없다. 그렇게 부르기에 내 강의나 성의가 부끄럽기 때문이고 그들이 내 이야기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를 지망하는 학생들도 이제는 드물디드물다.

나는 시를 가르친다기보다는 ‘허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엊그제의 일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중이다. 이야기 중에 교탁 가까이 결상 하나가 늘 놓여 있으므로 그것을 자주 끌어들인다.

“저 의자는 지금 비어 있지요?”

몇몇 아이들이 끄덕끄덕한다.

“비어 있어?”

다시 되묻는다. 그럼 이내 아이들도 다른 답이 있는 줄 눈치 채고 눈을 반짝인다.

“안 보여? 저분? 내 눈에는 봐는데”

“오… 무서워 괴담이다.”

의자는 분명 사람이 앓기 위한 인위적 물건이긴 하지만 굳이 사람이 지금 앓아 있지 않다고 비었다고만 할 수 없다. 비었다니… 거기 앓았던 이의 그림자가 있고 그가 놓고간 숨결이 있다. 그의 말소리가 떨어져 있고 그에 대한 기억이 어른댄다. 지금은 내 눈이 거기가 앓는다. 오후가 되니 오후의 비스듬한 헛빛이 들어와 앓고 가을이 놀고 있는데 비었다니. 허무가 있고 허무를 딛고 오는 미소가 있는데 비었다니. 비었다고 누가 가르쳤는가?

“아마 그동안은 비었다고 한 것을 맞다고 했을 것이고 빈 것이 가득하다고 하면 틀리다고 배웠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것이 사실에 더 가까울까?”

망설임에 아무 대답이 없다.

“시는 의자 위의 사람만 보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흐릿한 것, 투명한 것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보고 또 그곳을 지나가는 시간을 보고 그 모든 것에 귀 기울여 보자는 거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은 실은 어렵지 않다. 지금 보이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노예와 같아서 훈련된 것에서 놓여나려 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고 들리는 소리만 들으려 한다. 고집도 아주아주 세다.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고 그렇지 않은 것에서 와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돌아가는 한숨덩어리에 불과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헛것’을 보라는 말인가? 그렇다. 헛것을 보라는 말이다. 지금 보이는 것이 헛것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놋주발만한 내 손으로 채송화 씨를 모으고 있었으니 누가 보았다면 웃긴다고 했으리라. 그러나 그것이 채송화 씨앗 만이었겠느냐고 말해주고 싶다. 좀스런 사내의 어떤 마음 모퉁이가 그것을 원했고 그것은 채송화 꽃을 보겠다는 좀스런 욕심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너머에는 나를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도 있는 것이다. 텅 텅 비고 싶은, 해방!

채송화 씨앗을 모으기 어려운 내 이 손으로는 사랑을 줘기 어렵다. 내 이 손으로 학생들의 손을 불집고 시를 가르치기 어렵다. 내 이 손으로 권세를 잡기 어렵고 죽음과 고통의 구원을 얻어 줘기 어렵다. 그러나 내 손은 친물을 웅켜줘 얼굴을 셋기에 어렵지 않고 합장습掌하기에 어렵지 않다.

다행하게도 내년에 채송화가 올라와 갖가지 색채들로 조화를 이루어 꽃피어 난다면 또 내 손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

현대사회의 죽음 문제에 대한 불교적 이해와 고찰 ①

현우 / 사교과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현대 사회의 죽음 문제
 - 1) 뇌사
 - 2) 안락사/존엄사
 - 3) 자살
3. 불교에서 보는 인간 존재
4. 불교의 죽음 이해
5. 현대사회의 죽음 문제에 대한
불교적 고찰
 - 1) 뇌사 문제의 불교적 접근
 - 2) 안락사 / 존엄사 문제의 불교적 접근
 - 3) 자살 문제의 불교적 접근
6.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현대사회에서는 과학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전이라면 이미 자연사했을 환자들이 기계 장치의 도움으로 심장박동과 호흡을 유지하면서 장기 이식, 안락사, 혹은 존엄사 등의 윤리적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또한 물질적 가치에 치중한 사회 문화는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져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¹⁾

이 글에서는 불교가 제시하는 죽음관을 이해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현대의 죽음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현대 사회의 죽음 문제

전통적으로 죽음은 호흡과 심장 박동의 정지에 의해 결정되었다. 호흡이나 심장 박동 등의 필수적인 기능이 정지하고 나면, 다른 유기적 체계들은 거의 즉시적으로 뒤따라 파괴되고, 이는 개체 전체의 완전한 죽음으로 나타난다. 호흡 중추가 있는 뇌간을 포함한 뇌 기능이 정지하면 곧 호흡이 멈추고, 산소 공급이 안 되므로 심장도 곧 멈추게 되는데, 호흡과 맥박을 인공적으로 유지시키는 기계장치가 개발되고 의학기술이 진보하면서 죽음의 자연적 과정이 지연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죽음의 기준이 변화하게 되었다. 심장과 호흡의 중지 또는 뇌간을 포함한 모든 뇌 기능의 회복 불가능한 소실 상태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정의를 육체적 죽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대신하고 있다.

1) 뇌사

‘뇌간을 포함한 모든 뇌 기능의 회복 불가능한



‘소실 상태’인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인간 존재의 핵심은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은 두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뇌의 상실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미의 상실이라는 것이다.

뇌사 주장은 장기이식 수술이 발달하면서 촉진되었다. 심장, 간, 폐, 투장 등은 뇌사 상태의 사람에게 서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뇌사 인정을 하면 장기 이식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리는 길이 열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뇌사를 인정하는 첫 법률안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면서 장기 기증자에 한해 뇌사가 죽음으로 인정되었다. 즉, 의학적으로 뇌사가 명백해도 장기기증과 무관하게 인공호흡기를 끼는 것은 불법이다.

뇌사에 대한 비판으로는 약간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삶과 죽음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비판과, 장기 매매 등에 뇌사가 악용될 여지에 대한 현실적 비판이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1994년 설립한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중심으로 장기 기증운동을 하고 있다. 뇌사에 대해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2) 안락사 / 존엄사

안락사는 ‘환자가 극심한 고통이나 치료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인위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죽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개입이 필요하므로 자살과는 구별되고 어떤 형태로든 환자의 이익을 고려하므로 살인과도 구별된다.

존엄사의 개념은 다의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환자의 의사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윤리적으로 안락사에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첫째는 환자의 자발성과 관련되는 자기결정권의 원칙이다. 둘째는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는 타인에 대한 선의의 원칙이다. 셋째는 어떤 예외도 없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의 원칙이다. 안락사의 윤리적 딜레마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원칙 사이의 긴장에서 나온다.

안락사나 존엄사는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어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으나, 생전 유언이나 존엄사가 법적 혹은 관례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려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연명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례이다.²⁾

존엄사나 안락사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미디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다.

1) 오혜정, 〈34분에 1명,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살아있는 관심·생동하는 제도 절실〉, 조선일보(2011. 6. 14)

2) 류인하, 〈대법원, ‘존엄사’ 인정… 허용기준 제시〉, 인터넷 법률신문(2009. 5. 21)

3) 자살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이다. 서구 사회에서 자살을 처벌하지 않기 시작한 것은 신의 권위로부터 인간의 해방과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한 19세기 이후부터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살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08년 자살자 수는 12,858명으로 인구 10만 명 중 26.1명이며,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1위이다. 청소년층의 자살도 심각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청소년의 사망원인 1순위는 자살이었다.³⁾ 특히 자살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이다.

그 원인으로 인간 존엄성과 생명 가치의 약화, 엘리트 교육, 노동시장의 경직화, 가정 공동체의 상실을 들기도 한다. 실제로 자살 사례를 추적해 보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거의 없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생각, 자살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세상과 사회가 나를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생각, 자살하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한다는 생각으로 자살을 감행한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시급한 상황이다.

3. 불교에서 보는 인간 존재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 보는 인간 존재는 5온五蘊으로 이루어진 연기적 존재이다. 5온은 다섯 가지 요소들이 집적되어 모여 있는 상태라는 뜻으로, 색色 · 수受 · 상想 · 행행 · 식識으로 구성된다. 색은 물질 고유의 성질대로 변화하고 소멸되며, 수 · 상 · 행 · 식도 각각 기관과 대상과 의식이 접촉할 때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일시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5온 역시 일시적이며 무상한 것이다.

존재의 생성과 변화는 인연화합인 연기의 결과이다. 연기법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혼자서 생겨나거나 존재할 수 없으며, 상대적이고 의존적이다. 또한 연기법에 의하면 지배받는 5온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육도를 윤화한다. 삼계라고도 하고 육도라고도 하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세계이다. 전생에 지은 업보에 따라 각각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다.

환생의 과정은 사유설四有說로 설명된다. 4유란 생유生有 · 본유本有 · 사유死有 · 중유中有⁴⁾를 말한다. 중유는 중음中陰이라고도 한다. 《대비바사론》에 따르면 중유의 최대지속 기간은 7일이지만, 출생의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수차례 죽고 나고를 거듭하여 최대한 칠칠일(즉 49일)을 넘기지 않는다고 한다.

3) 김준억, 김용래, 〈청소년인구 급감, 다문화가정 학생수 급증〉, 연합뉴스(2011. 5. 3)

“…통계청이 내놓은 〈2011 청소년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망원인 1순위는 자살이었다. 2009년 기준 15~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살(자살)가 10만명 당 15.3명으로 가장 많았고…”

4) 권오민, 『아비달마구사론2』, (동국역경원, 2002), p.410.

모태에 생명이 결성되는 찰나의 존재를 생유, 생유 이후부터 임종 직전까지의 존재를 본유, 임종하는 찰나의 존재를 사유, 사유로부터 다시 내 생의 생명이 결정되는 생유 사이의 기간을 중유라고 한다.

4. 불교의 죽음 이해

역사적으로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의 전개 과정에 따라 불교가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져 왔다.

초기불교에서는 인연이 다함에 따라 체온이 상실되고 의식이 없어지며, 이로 인해 수명이 정지하는 상태가 죽음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수명을 통해 육체적 요소인 체온과 정신적 주체인 식을 보존하고 지속하는데, 수명은 업에 의해 유지되다가 체온과 의식이 육체를 떠남으로써 파괴된다.

부파불교에서는 명근命根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으로 보았다. “명근의 본질은 수壽이고 능히 卍暖과 民識을 가진다”고 하여 명근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명근이 기능을 상실하면 죽음이다.

유식불교에서는 아뢰야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인간은 아뢰야식이 신체를 대상으로 삼아 집수할 때 생명을 유지한다. 유식의 관점에서 인간을 포함한 세계는 모두 아뢰야식의 변현이다. 그러나 인간과 기세간器世間의 차이가 있다. 세계는 아뢰야식에 집수되지 않지만, 우리들의 신체는 아뢰야식에 집수된다 는 것이다. 그리고 아뢰야식이 신체의 집수를 포기하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개체는 죽음을 맞이한다.

티벳불교의 죽음 이해는 《티벳 사자의 서》에 잘 나타나 있다. 티벳불교에서는 외적인 호흡의 멈춤이 아니라, 육체와 의식이 완전히 분리되는 내적 호흡의 멈춤이 진실한 죽음의 시작이다.⁵⁾ 심장이 완전히 멈추었다고 판단되면 죽음의 과정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시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의식이 육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데는 특별한 도움이 없을 경우는 3~4일이 걸린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시신을 처리하지 않는다. 사후 세계는 치카이 바르도, 초에니 바르도, 시드파 바르도, 3개의 바르도로 구성된다.⁶⁾ 바르도 개념은 지금 이 삶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 죽음 이후,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바르도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다.

남방 상좌부 불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는 《쌍웃따 니까야》에 의하면 “존재의 다발이 파괴되고, 유

5) 꽈만연, 〈불교의 죽음관의 전개와 티벳 사자의 서에 나타난 죽음관의 전개〉, 《철학논총》 제48집(사한철학회, 2007), pp.20~21.

먼저 다섯 가지 감각이 문화되고 상실되면서 육체의 해체가 시작된다. 동시에 몸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지, 수, 화, 풍, 공의 점진적 해체도 일어난다. 땅의 기운이 대해 육신의 힘이 떨어진다. 두 번째로 수의 기운이 대해 배설이나 눈물의 통제력이 떨어진다. 세 번째로 화로부터 비롯 한 몸의 온기와 혈색이 사라진다. 네 번째로 풍의 기운이 대해 사고의 감각이 없어지며 호흡이 어렵고 다섯 번째로 공으로 그 육체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게 된다.

이후 내적 호흡이 멈추기까지 인간 의식의 해체가 시작된다. 회로애락의 감정이 사라지며 훈미한 상태로 의식이 없는 영혼의 존재만이 빛으로 남는다. 이 시점부터 죽은 자에게 유일무이한 해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6) 강선희, 《체험으로 읽는 티벳사자의 서》(불광출판사, 2008), pp.156~203. 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① 첫 번째 바르도(치카이 바르도) : 죽음의 순간부터 3~4일 동안의 기간이다. 죽음의 순간 최초의 투명한 빛이 나타나는데 이 빛은 모든 유정의 근본 마음상태로부터 밝아오는 순수한 빛이다. 이 빛을 인식하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면 해탈에 이를 수 있으나, 사자는 자신이 지은 업 때문에 그 빛을 두려워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

② 초에니 바르도 : 사자 앞에 행복과 기쁨의 42신, 그리고 분노와 슬픔의 58신이 만물의 근원이자 형태라고 하는 만다라를 구성하여 나타나게 된다. 이 카르마의 환영이 자신의 마음에서 빛어지는 것임을 확실하게 알면 사자는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해탈을 얻게 된다.

③ 시드파 바르도 : 공포에 지친 사자는 육도로 이끄는 윤기없고 쟁백한 빛을 보게 되면 어디로든 들어가려 한다. 흰색은 천상으로, 녹색은 야수라계, 회미한 노란색은 축생, 뺨간색은 아귀계, 그리고 검은 빛은 지옥으로 가게 되며, 파란색은 인간계로의 환생이다.

해가 내던져지는 것”⁷⁾이다. ‘유해가 내던져지는 것’은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존재의 다발의 파괴’는 존재의 다발, 즉 5온의 파괴를 말한다. 존재의 다발의 파괴에는 윤회가 따른다. 특기할 만한 점은 남방불교의 윤회는 육체를 수반하는 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죽음의 과정에서 5온 중 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죽어가는 자에게는 죽음 의식으로, 모태에 턱태되는 자에게는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난다. 죽음 직전의 마지막 인식과정에서 나타난 대상은 다음 생의 바왕가⁸⁾와 재생연결식의 대상이 되며, 이 마음에 포함된 의도는 재생연결식을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으로 건너가는 다리 역할도 한다. 인식 과정 끝에 죽음 의식이 일어난 뒤 소멸한다. 죽음 의식이 끊어지면 생명기능이 끊어지고 죽은 시체만 남게 된다. 죽음 의식이 멀하자마자 바로, 육계나 색계 중생이라면 심장에 의지하여,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 재생연결식은 다음 생의 첫 번째 마음이다.

살펴본 대로 죽음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교설은 초기불교(아함경), 부파불교, 유식불교로의 전개나, 혹은 남방 상좌부 불교나 티벳불교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

티벳불교, 남방 상좌부 불교, 현대 의학의 죽음 이해의 세부적인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티 벳 불 교	남방 상좌부 불교	현대 의학
죽음 정의	내적 호흡의 멈춤	존재 다발의 파괴 유해가 내던져지는 것	호흡과 심장 박동의 정지 / 뇌 전체의 기능정지
죽음 현상	지·수·화·풍·공의 해체 수·상·행·제6식의 해체	수명·체열·의식의 사라짐	호흡과 심장 박동 정지 / 무반응성
사후 존재	중유(바르도체) (49일간 해탈의 기회)	없음 (죽음 이후 바로 환생)	없음 (윤회 인정하지 않음)

〈표 1〉 티벳불교, 상좌부 불교, 현대 의학의 죽음 이해

〈 다음호에 계속 〉

7) 꽈만연, 위의 논문, p.4 재인용.

8) 대림스님·각목스님 역해, 『아비담마 길라잡이』(초기불전연구원, 2009), pp.293~294 참조.

바왕가(bhavanga)는 한 개체의 삶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연속성을 유지시켜 주는 요인이 된다. 즉 마음의 상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마음이다… 이 바왕가는 전생의 죽기 직전 나타났던, 업이나 업의 표상 혹은 태어날 곳의 표상 중 하나를 그 대상으로 가진다. 그래서 전생과 금생을 연결하는 재생연결식과 같은 대상을 가진다.

그 나뭇잎은 바로 나무 전체였다



당신은 무심하게 길을 따라 조용히 걷다가 가을에 떨어진 노랗고 밝은 빛깔의 붉은 잎들, 낙엽들, 죽은 나뭇잎들을 보았다. 그 나뭇잎들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그 죽음에 있어서는 너무나 소박한 이 나뭇잎들은 온 나무와 여름의 아름다움과 활기로 가득 차서 그렇게 활발했었는데. 그 나뭇잎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잎의 모든 엽맥과 엽병, 모양이 보였다. 그 나뭇잎은 바로 나무 전체였다. (중략)

그 모든 아름다움과 빛깔을 지닌 죽은 나뭇잎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이 단지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도 있었으리라. 죽음은 어떤 두려운 것, 피해야 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이면 날마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 크리슈나무르티의 『마지막 일기』 중에서 –

참회

제우 / 사집과

안녕하십니까? 사집반 제우입니다. 11월입니다. 산중의 잎이 다 지고 여름 동안 가려져 있던 산과 계곡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11월을 가리켜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고 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다 사라진 듯 하지만 또 다시 소생할 여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대중스님들 앞에서 저도 11월의 산과 계곡처럼 온전히 저를 드러내어 지나간 삶을 참회하고 따스한 불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출가 전 저는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하며 배우지 못한 사람은 교육받아야 합니다’라는 말에 매료되어 남을 위한 삶을 살아보고자, 한 수행공동체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각본대로라면 삶이 점차 성숙되고 행복해져야 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면 뭔가 복이 될 것이라는 마음과 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길을 선택했다는 잘못된 회생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여행길에서 알게 된 은사스님께서 석남사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것에 이끌리듯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남사에서의 출가생활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기이한 세상이었습니다. 특히 습의와 경채 속에서 나타나는 수직적 인간관계는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6근에 의해 보이는 6경들에 대해 분노, 폭력, 교만을 날리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스스로를 돌아보던 찰나, 평상시 저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여겼던 한 심리학자의 실험이 생각났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필립 짐바르도는 2차 세계대전 종결 당시 유대인 포로수용소의 관리장교를 심문했던 내용을 가지고 ‘교도소 실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잘못된 만행을 저지르더라도 특정제도가 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책임을 지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망설임 없이 그 일을 진행하는 심리를 검증하기 위한 그 실험에서 죄수와 교도관들은 실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안 그럴거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강원을 들어오고 사집이 된 어느 날, 아랫반 스님들을 습의시키면서 격정자리를 하다가 저는 그만 화를 못 참고 고양이 쥐 몰듯 하며 소리까지 지르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반을 습의시키고 격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내 마음속에 분노, 폭력, 교만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에 휩싸일 즈음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채찍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초파일 방학 때 선방 스님 한 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차를 불렀는데 소임자 스님께서는 저보고 같이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던 저는 싫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왜 하필 나야! 나도 죽을 지경인데…!’ 대답도 제대로 안하고 입이 한 움큼 튀어나와 응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의식도 분명하지 않은 그 스님이 제 손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손을 꼭 잡은 스님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곤하다는 평계로 나만 생각하는 이 눈먼 마음은 뭐지?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저 자신에 대한 해체감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에 믿고 의지할 곳이 없는 듯한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며칠을 지켜보고 계시던 온사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우야, 혹시 강원에서 너를 못 살게 구는 사람 있나?”

“아뇨…… 무얼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신 온사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우야, 진정한 수행은 지금 너의 그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란다.”

우리는 흔히 송단에 소속되어 있으면 스님이라 이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세가 없는 승려가 과연 승려가 될 수 있을까요? 머리를 깎고 먹물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삶을 개선하지 않고는 승가에 있다고 해서 출가승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남을 돋겠다고 집을 나선 저는 결국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절망하는 순간순간의 틈새로 꽃향기처럼 스며 나오는 알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하루 중 더 많은 순간을 화를 내고, 제 편견을 고집하고, 저 자신의 허물을 보다 남의 허물을 탓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꿋꿋이 저를 돌아보며, 부처님이 되도록 노력하는 출가승이 되고자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담으며 하루 중 더 많은 순간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보는 법정 스님의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를 소개하면서 저의 차례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친절해질 일이다. 조금만 더 따뜻해질 일이다.”



청화 스님의 사성암 동안거

자민 / 사집파

생사대사 生死大事	삶과 죽음이 가장 큰 일인데
무상신속 無常迅速	덧없는 세월은 빨리 가버리니
촌음가식 寸陰可惜	짧은 시간도 한껏 아끼며
신물방일 懈勿放逸	방심하고 게으르지 말라

위 글은 ‘근고청중謹告清衆 (삼가 청정대중에게 알림)’이라 하여 청화 스님이 사성암에서 동안거를 나기 위해 혼자 거주하는 암주 보살을 방세를 주어 아랫마을로 내려 보내고 훌로 삼동 한 철을 지내면서 밖에 내걸었던 풋말입니다. 엄동설한 산 속, 불기운도 없는 그곳의 혹독한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훌로 용맹정진했습니다. 과연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그런 수행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청화 스님은 1923년에 태어나서 24세에 백양사 운문암 금타 화상을 은사로 출가하여 수행하셨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없어진 태안사에서 1985년 20여 명의 스님과 3년 결사를 시작으로 불사와 수행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화상을 이루고 대중교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선종구산禪宗九山의 하나인 태안사 동리산문을 일으켰습니다. 청화 스님은 40여 년 동안 전국 제방과 토굴을 다니며 일종식, 장좌 불와 및 묵언 등의 혹독한 수행을 초기일관한 이 시대의 선승입니다. 청화 스님은 투철한 계율과 정혜쌍수를 기본으로 하는 염불선을 주창하였습니다. 염불선은 우주의 실상과 근본이 일체 만유를 다 포섭하고 있는 불성 자체이고 그것은 부처님의 마음인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고 일체 만유의 마음임을 깊이 관하여 실상의 자리와 자신의 자성이 조금의 차이도 없음을 관해 삼매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스님을 주위에서 외도라고 비난했을 때도 스님은 덧없는 세월 빨리 가버리는 그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부처님의 바른 법이라는 것이 알려질 때까지 묵묵히 수행해왔습니다. 부와 명예가 만연한 이 세대에 부와 명예로 치장한 몸에는 도가 깃들 수 없다는 것을 행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평생을 통해 청빈한 삶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큰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큰스님의 삶과 수행은 저에게 일 년하고도 두 철이 지나고 있는 운문사 생활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미니계를 받던 날, 계를 받아 좋다는 마음보다 장삼과 만의의 무게만큼 더 잘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 법대로 사는 걸까 하는 생각에 겸허한 마음으로 사미니계를 받았던 그때. 그래도 그땐 말뚝 신심이라도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삼가 청정대중에게 알립니다. 삶과 죽음이 가장 큰 일인데 덧없는 세월 빨리 가버리니 촌음도 한껏 아껴 방심하고 계으르지 말라.”

기도하던 절에서 열반하신 청화 스님의 추모 1주년 기념으로 청화 스님의 일대기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지만 한 스님의 삶 앞에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심이 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큰스님처럼은 아니더라도 몇 분의 일이라도 따라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왜 큰스님 생전에 친견하는 복을 짓지 않았을까.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지금, 치열한 수행정신과 청빈한 삶으로 수행자들의 귀감이 되었던 큰스님의 삶을 나는 맑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에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던 그 순간에 남에 대한 배려는 얼마나 했을까? 하심은? 또 신심은? 하고 뒤틀어 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늦깎이인 만큼 다른 스님들보다 몇 배 많이 노력해야 하기에 빨리 가는 시간이 저의 마음을 더욱 바쁘게 합니다. 다시 한번 큰스님 책을 접하게 된 이 기회로 마음을 좀더 너그럽게 가져야겠습니다. 청화 스님께서 당신의 삶에, 수행에 충실했듯 저 또한 하심을 견고한 신심 속에 담아 부처님 법대로 살도록 감사한 마음을 내어 행복의 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질의 주고받음을 흔히 있는 일이나 진리와 안심을 얻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은 아주 철두철미한 과학인 동시에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철학이요 영생불멸한 행복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훌륭한 종교입니다.”

이제는 하루하루를 차분한 마음으로 ‘오늘은 내가 부처님 법을 무엇을 배우고 실천했을까’라는 기대와 희망이 충만하게 된다면, 그 수행이 싱싱해지고 더 부지런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과 공정적으로 밝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 큰스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야겠습니다. ☺

눈물의 의미

우담 / 사미니파

얼마 전 불현듯 열어본 메일!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마지막 ‘행복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보낸 이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한 글에서 ‘행복…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행복하다고 답할 수 있을까?’ 하고 한동안 명하니 생각에 빠져 있자니 출가 전 여행했던 곳, 내 기슴을 뜨겁게 했던 그 시간이 떠올랐다.

출가 전 나는 사찰 템플스테이의 실무자였다. 출가를 결심하고 당시 국장스님이셨고 지금은 온사스님 이신 스님께 말씀드렸을 때, “왜 출가하려고 하느냐”고 물으셨다. 그때 나는 주저 없이 답할 수 있었다. “누군가의 어떤 존재가 아닌, 누군가의 행복으로가 아닌, 이곳에 있는 나 스스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고 스스로 돌아보며 그 안에서 행복도 자신감도 찾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내게 스님께서는 그거면 되었다고 그 마음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토탉여 주셨다. 그리곤 살며시 안아 주셨다.

그 후, 법당에 들어가 기도할 때면 ‘부처님! 부처님 제자가 되는 이 길에 좋은 스승 만나게 해 주시고 좋은 도반 만나게 해 주시고, 저 또한 그들에게 좋은 제자, 좋은 도반이게 해 주십시오!’ 라며 기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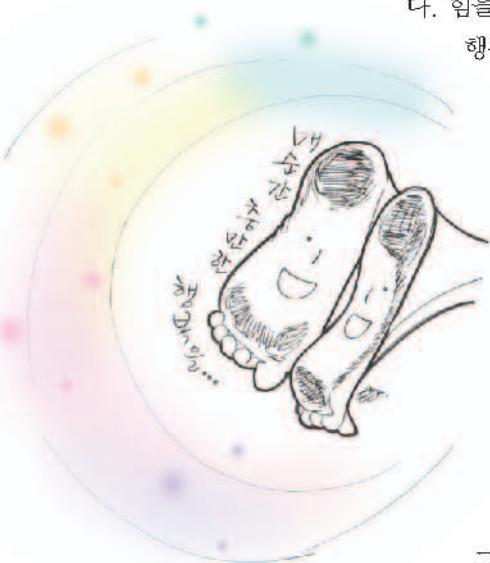
어느덧 소임을 마칠 때쯤, 인도에 가고 싶어졌다. 스님께서 출가 전 인도에 한번 다녀오는 것이 어렵겠느냐고 말씀하셨을 때는 막연히 ‘언젠가 가야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점점 가고 싶어졌다. 가고자 마음 먹고 나니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되었다. 지인의 인연으로 한 스님과 한 달여의 일정으로 보드가야와 바라나시를 여행하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났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 함께 한 스님께서 티벳 콘스님의 법문 통역을 맡게 되어 그 법문에 함께 참석하여 뜻 깊은 시간도 보냈다.

법문이 없는 날이면 새벽에 일어나 가방을 메고 대탑으로 향했다. 안개 낀 골목길을 걸어 대탑 앞에 다다르면 살며시 부처님께 합장하고 신발을 벗어 들고 빛린 절판이 있는 자리로 향했다. 이미 대탑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각자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안에서 나도 하나가 되어 절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와는 다른 형식의 티벳 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철퍼덕! 철퍼덕! 온몸이 옥신우신… 그렇게 차츰차츰 익숙해져 갔고 마음 또한 편안하고 차분해졌다. 힘들었지만 대탑을 감싸 안듯 빙 둘러 기도하는 많은 수

행자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점심공양 후엔 보리수나무 앞에 앉아 있곤 했다. 많은 사람들이 탑을 돌다 보리수나무 앞에 다다르면 잠시 멈추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나도 모르게 같이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인 순간 보게 된 그들의 발. 두근! 두근!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가슴 속에 무언가가 용솟음치는 듯했다. 꽉 찬 듯한 따스함, 터질 듯한 담담함…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마음이 일어났다.

어떤 이들은 이곳에 오기 위해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을 사용한다고 한다.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이곳에 자신들이 온 것만으로도 충만한 행복을 느낀다고. 그런 그들의 발은 그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한때 난 사랑하는 이들에게 닥쳐오는 슬픔, 불행,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으로 일어나는 것만 같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통째로 혼들리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어 기슴을 치던 그 시간 속 나의 모습이 그들의 발과 겹쳐지듯 마음이 아팠고, 웬지 모를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때의 그 마음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겐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다.

그날의 그 위안을 잊고 다시금 눈앞의 일에 쫓겨 스스로를 상처 주고 있다고 느껴질 때면 문득 그들의 발과 함께 드는 생각들이 있다. ‘난 지금 매 순간 순간을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행복해?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글을 보는 순간 바로 답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었던 거지?’

나도 모르게 흐르던 눈물. 그 의미와 같은 마음일지도 모르겠다. 망설임 없이 “행복해”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될까? 그때가 되면 숙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한순간 나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뒤틀어본다.

“자비심이 움틀 때 우리는 생명이란 모두 같으며, 하나하나의 존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칼루 린포체, 〈햇빛과 달빛처럼 모든 존재를 공평하게 비추는 진리〉 중에서 ☺

운문사의 사계

지원 / 사집파

무심한 운문사의 사계절은 참 아름답다.

치문 첫 철, 운문사의 봄은 내게 있어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그래서인지 그 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과 울창한 숲, 나뭇가지엔 바람이 지나고, 구름은 산허리를 돌아 자유로이 노닐고 산 또한 저절로 자유로워 보였다. 눈길이 가는 곳 처처에서 무심하게 현현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은 출가하기 전 늘 그리워했던, 만들어지지 않은 절서와 꾸밈없는 깨끗함이었다. 가끔씩 꿈속에서나 보았던, 아쉬웠던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현실임에 화들짝 놀라고, 그 무심 속에 있는 내가 행복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잠시 그 행복을 놓쳐 버리고 말았다. 나를 잊어버렸던 것이다. ‘대중’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치문이라는 현실에 매몰되어 스스로 그 현실 속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마음은 스스로 ‘수행’이라는 이름을 세우고 일상 속에서의 충실히으로 그 모습을 갖추어갔다. 소임을 위한 소임에 묻혀 버리고, 줄달음치며 하루의 일과에 묻혀 버리고, 대중의 흐름 속에 묻혀서 내가 가야 할 바를 잊어버린 것조차도 모른 채 ‘수행’이란 이름의 경계에 휩쓸려 달려가기만 한 것이다. 갖은 이름으로 세운 망념의 숲이 우거진 밖을 향한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철소임을 마치고 생각했다. ‘수행’을 이름한 ‘수행’은 이익이 없다는 것을. 물론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익이 없는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적잖이 혼란했던 현실에서 ‘충실히’을 수행으로 삼았던 것이라 여겨진다. 때론 내 마음이 바깥 경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적극 수용受容하여 맹목적인 수행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말하자면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대상을 수용하는 내 마음이 문제임을 그때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었다는 것이다. 결국, 불수삼매不受三昧(모든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음, 경계와 무관한 경지)의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알아차림’이란 말은 수도 없이 듣고 또 듣는 말이지만 알아차림이 제대로 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그것은 아마도 정념正念의 문제인 것 같다. 마음이 안으로 머물게 하고 대상에 끄달리지 않으며 망념이 생기면 알아차림으로서 마음을 정념에 머물게 해야 한다 함은 결국 번뇌공을 이루기 위한 쉽지 않은 수행인 것이다. 정념에 머무르지 못함은 마음이 번뇌와 망상으로써 모든 법을 만들고 마음 밖의 대상에 끌려가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었을 때가 되어서야 가까스로 알아차림으로써 내 마음은 안으로 향했다. 최선이란, 오류와 함께 완성이 되는 것일까? 지금 생각해 보면 혼란스럽고 버거웠던 날들이 내게는 유익함이 되었다.

치문의 가을은 내게 행복을 다시 찾아 주었다. 가끔씩 하면 일을 멈추고 멀리 산마루에 피어오르는, 결코 머무름이 없는 저 구름을 보면서 무심한 바람의 소리를 들었다. 산은 산으로 구름은 구름으로 바람은 바람으로 시시때때로 아름답게 현현하고 있지만 저들은 그 아름다움에 의미조차 두지 않는다. 변화를 보게 되면 실체 없음을 보게 되며 실체 없음이 공이요, 공을 보게 되면 번뇌 망상이 없게 됨을 알아야 하고 또 한 번뇌가 소멸하면 안과 밖의 경계가 없어진다는 가르침을 생각한다. 물론 망념이 없으면 공도 또한 없을 것이다. 하늘은 푸르고 단풍이 어우러져 가을은 계곡에서 졸졸 노래하고, 쉬는 날 나는 치문의 그 가을로 돌아가 작은 돌 틈새에서 졸졸 흔들리는 억새가 된다.

운문사의 사계

운문사의 사계절은

와도 온다는 말 없고

가도 간다는 말이 없다.

왔다고 말하고

갔다고 말하지만

운문사의 사계절은

스님들의 묵언과 함께

다만 이 자리에서 현현하고 있을 뿐이다.

운문사의 사계절은

시작의 의미를 주고

마무리를 뜻하고

고독으로 표현하고

진실이라 말하고

도道라고 말하지만

스님들의 예불소리와 함께

시시때때 현현하고 있을 뿐이다.



새벽예불을 시작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도반 스님들의 바쁜 모습 속에서 내 마음을 챙긴다. 우리의 마음이 일상에 묻혀 어느새 ‘나’를 세우고 모든 현상 있는 것과 더불어 분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몸 기운에 의해 마음이 형성되고 그 마음에 의해서 번뇌가 생기며 경계가 나타난다. 사실 이러한 일체의 모든 법은 실체 없음으로 비교의 대상이란 없다. 분별이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수행’이라는 이름을 세우고 그것에 충실히 실은, 경계에 속아 마음이 밖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운문사의 무심한 사계절은 나의 선지식이다. ●

긍정과 부정 그리고 진심眞心

수목 / 대교파



“강원을 내년에 가면 안 될까요?”

강원에 입방고사를 치려 가기 전, 내내 사숙님께 여쭈어 봤던 말이다. 강원을 간다는 것이 겹이 났다. 선배 스님들의 경험담(?)을 듣고 자신이 없었던 걸까, 스스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생각에 강원 가는 것이 두려웠다.

삭발염의하고 사미니계를 받고, 소임 몇 개 살고 나서 강원에 왔다. 잘 몰라도 강원에만 가면 다 익힌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들어선 운문사, 벌써 4년 전 이야기다.

반강제적으로 들어오게 된 강원, 입방고사 때 주지스님께서 “출가하고 힘든 시기가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하고 물어보셨다. 난 무슨 생각으로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삭발하고 이렇게 승복을 입게 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이겨냈습니다.” 이게 나

의 대답이었다. 주지스님께서는 이렇게 궁정적인 사고를 하는 학인과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되어서 기쁘다며 입방하는 날에 보자고 말씀하셨다. 몇몇 어른스님들께서는 나보고 궁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왜 그리 찔렸던 것일까. 그 의문을 한구석에 담아둔 채 나의 대중생활은 시작되었다.

대중생활을 하며 남들의 오해를 받곤 했다. 그 당시는 오해받는 상황에 감정이 앞섰는데 잘 생각해보니 그것은 나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나는 그동안 상대방을 의식해서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듣기 좋을 것 같은 말을 많이 해왔다. 그런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활발하다’ 또는 ‘궁정적이 다’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 하지만,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공격적이고 말이 어눌해질 때도 있다. 나의 부정적인 본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결국 내가 평소 하는 말의 습관이 진정한 나의 모습과 겉보기의 내 모습 간에 조금씩 조금씩 거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내 모습을 알아차리고도 처음에는 난 내가 왜 그러는지 몰랐다. 그러다 그 까닭을 알아차리는 때를 만났다. 평소에 난 심리학 관련 자기계발서 종류의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책의 이론을 나의 경우에 빗대어 사고를 해보곤 했다. 그렇게 ‘나’를 놓고 하나하나씩 분석해 봤다. 그러면 순간 ‘아~!’ 하는 탄성이 나왔다. 나와 남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내 의식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스스로를 포장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른스님과의 대화 속에서 난 의식적으로 내 본마음과는 다른 포장된 말을 하여서 그 말들이 내가 아는 나와 남이 보는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든 것이다.

책들을 읽어가면서 알게 된 것은 내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알고 나니, 부정적인 생각의 나를 말만이 아닌, 궁정적인 사고의 ‘나’로 바꾸는 일이 내게 과제로 주어졌다. 그 과제를 풀기 위해 난 계속해서 책도 읽고, 나 자신을 반성해 보았다. 그 덕분에 무심코 넘긴 책장 속에서도 나 자신을 위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지혜의 길을 보여주는 문장이 오늘을 이겨낼 힘으로 다가왔다. 매순간 스스로에게 더 솔직해지자고 다짐하며 어깨를 활짝 펴본다. 그렇게 보낸 시간과 차곡차곡 쌓아간 강원에서의 시간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다. 밀할 때 한 마디 한 마디, 발을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낀다.

어느 방학 때 노스님께서 ‘초발심시변성정각初發心時便成正覺’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과연 나의 첫 출가했을 때 마음이 지금 강원 졸업을 앞둔 지금의 마음과 같을까? 처음 발심했을 때가 정각을 이룸이라 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시선이 얼마나 변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요즈음, 행자시절 《초발심자경문》을 공부할 때 구절구절이 새록새록 다가온다. 초심자를 경계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글의 구절구절을 내가 과연 실천하고 있나 하는 반성도 해본다.

이 글을 쓰면서, 강원 다니는 4년 동안 쓴 일기를 다시 뒤적거려 보았다. 4년이란 시간 동안, 매 순간 순간을 열심히 살았던 날도, 또는 포기하려던 날도 그리고 슬퍼서 울었던 날도 있었다. 그러한 날들이 오늘의 과거가 되어 나를 만들어 주고 또 미래를 꿈꾸게 한다. 4년 동안의 시간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발견하게 될 나의 본모습을 잘 관찰하고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여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야겠다. ●

이른 아침, 여름방학을 시작하는 대중인사를 마치자마자 발걸음을 재촉한다. 아직 도시는 새벽이겠지만 시골 산중의 수행자들은 떠오르는 해에 턱질세라 바쁘게 투루마기 자락을 날렸다. 목적지는 수도 서울. 만나 뵙게 될 주인공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과 불교대학원장을 겸직하시는 계환 스님.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 2박 3일간의 중국불교사 특강은 굵은 폭포수처럼 시원스럽게 이어지는 학문적인 전달은 물론, 매 시간마다 이어지는 유쾌한 진행은 우리를 사로잡기에 충분하였다. 2천년간의 중국불교의 역사적 전개를 종횡무진으로 열강해주신 좋은 시간이었다.

“항상 배우며 산다”

보경 / 사교파

이번에 학교로 다시 찾아뵙게 된 스님은 지명도가 있다거나 섭외하기 힘든 스님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소탈하게 반겨주시는 스님께 동문 후배의 입장에서 첫 질문을 시작해 보았다.



— 강원 시절 때부터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개설 정도로 총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출가하신 후 수행자가 할 수 있는 여러 분야에서 특히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처음부터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는지요?

— 졸업하신 지 한참 되셨는데 최근 운문사를 방문하셨을 때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79년도에 졸업했으니까, 제가 다닐 때에 비해 도량이 아주 많이 넓어졌어요. 그땐 전각이나 요사채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예전에 비해 지금 운문사의 규모는 굉장히 커졌지요. 그런데 반대로 학인의 수는 많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이 아주 아쉬워요. 저는 강원에 가서 학인스님들을 볼 때면 항상 기뻐요. ‘이 스님들이 앞으로 부처님 법을 이을 사람들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고맙고 또 고마워져요!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원 가기 전 동국대를 먼저 다녔어요. 출가해서 얼마 안 되어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어른스님들에 대한 동경이 가득한 상태였지요. 학교를 가면 스님들이 가르치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갔는데 막상 가보니 당시 그렇지가 않았죠. 저는 다소 실망함과 동시에 스님들의 교육은 스님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도 거기에 일조를 해야지! 하고 다짐했어요. 아무도 나보고 사명감을 가지라는 말은 안했지만 혼자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기 시작했어요.(웃음)

— 그 꿈이 넓어져서 스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재기불자 학생들까지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인기 있는 교수 스님이 되신 비결이 있으신가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공空사상의 대가이신 카지야마(梶山) 교수님에게 강의를 들었어요. 어느 날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수업준비를 제대로 해오지 못한 점을 학생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휴강을 해도 좋겠느냐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제게 매우 큰 감동이었습니다. 30년간 공사상만을 연구한 학자가 설사 준비하지 않았던 대학원 수업 정도를 못할 리 없을 텐데 대충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수업시간에는 본인이 그 분야 최고라는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학생들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강의를 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요. 그래서 저도 제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자신감을 가지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수업은 상호간에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하지요. 저는 강의할 때 가장 즐겁습니다.

— 저번 특강을 들을 때 앞에서 강의하시는 스님의 기운이 느껴져서 그 힘에 저희들도 더 열심히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파워풀한 자신감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죽기 전까지 배우고 싶은 것이 차고 넘치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인생을 짧지게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있다고 생각하면 배울 것이 없듯이, 모른다고 생각해야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배움을 무시하고 정지하면 어느 순간 반드시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더 한층 발전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은 배우는 사람에게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질문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웃음)

— 여러 곳에서 특강으로 모시기 힘든 스님이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무슨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귀국 직후, 시간강사를 할 때 주변 동료 강사들의 생활고를 옆에서 직접 지켜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수가 되고 나서 외부강의를 일부러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강원에서 청하는 강의는 사랑하지 않고 해왔죠. 그것은 스님들의 교육은 스님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십이 넘으면서부터 후배들에게 강의를 넘겨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후배스님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요.



— 그냥 살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 70년대에 출기하셨고, 더구나 일본 유학생활까지 하셨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개의 감성 주머니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꺼내 쓰는 주머니가 바로 친절과 배려예요. 반면 용기는 자주 꺼내 쓰는 주머니가 아닙니다. 낭떠러지에서 죽을 것 같을 때만 꺼내죠. 용기를 자주 꺼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저는 용기를 자주 꺼내 쓰는 편에 속합니다. 일본 유학도 바로 용기를 꺼낸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수시로 용기 주머니를 꺼내 쓰세요.(웃음)

— 마지막으로 복잡하고 많은 일이 일어나는 강원생활을 지치지 않고 신심 있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신심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내라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부처님과의 대화에서 찾아야지요. 자신이 왜 출가를 했는지 남에게 공개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너그러이 받아주신 부처님께 대한 감사함을 신심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수많은 혀상에 속지 않고 들며 있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처님께 감사하며 살아요. 부처님과 눈 마주치면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들고

신심이 절로 나요. 그래서 부처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려요. 먼저 감사를 드렸으니까 나중엔 받을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웃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꼬~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사족을 붙일까요?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을 보면 남들과 다른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대상을 경쟁자나 외부환경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묻지 않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지금 내 위치는 어디인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제와 다른 자신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 우리들의 질문에도, 인터뷰 후 가지게 된 포토타임에서도 스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살피시며 셔터 누르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신다. 이미 수십년간 기도와 학문의 노력으로 다져진 스님. 그래서 그곳이 법당이든 강단이든 교정의 나무 아래에서든 어디에서나 빛나는 걸까?

늘 있는 곳을 벗어나 새로운 이를 만나면 달혀 있던 생각이 열리고 새로운 맘이 움튼다. 얼마만인가? 다른 이가 만들어 놓은 그늘을 보며 내 자리를 살펴본 것이… 한여름 태양 아래 뜨거운 교정에는 커다란 나무들의 녹음이 가득했다. ●



손으로 빚은 반달, 송편

| 2012년 추석맞이 송편빚기 대중운력 |



불국정토를 염원하며

여향 / 대교파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던 지난 여름, 그날도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우리는 법륜 스님이 계시는 문경으로 바삐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정감 있게 느껴지는 주변 시골풍경을 뒤로 하고, 정토수련원에 도착한 우리들은 바로 발밑으로 펼쳐지는 전경을 보고 탄성을 자르며, 감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확 트인 전망 덕분에 땀을 식히며 한숨 돌린 후, 우리는 곧바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토회 문경수련원이 처음 자리 잡을 당시 법륜 스님이 손수 지으신 흙집이 현재 종무소로 사용되고 있다. 그곳에서 우리를 안내할 묘수 법사님이 맑은 미소와 함께 합장을 하며 반겨주었다. 묘수 법사님은 법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들을 정토회 문경수련원 곳곳을 구경시켜주시며, 도량이 안정되어 가기까지의 역사와 이곳 사람들의 수행과정, 프로그램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우린 종무소에 딸린 아주 조그마한 방 앞에 앉아 법륜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있으려니 스님께선 맑은 미소를 머금으시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하시며 걸어오셨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들에게 바쁜 스케줄을 조개어 황금 같은 시간을 내어주신 스님과의 고대하던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운문사 주지스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신 선물을 건네 드리자, 귀한 선물에 감사하다 하시며 스님께서 쓰신 책을 공양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시간 남짓밖에 안 되었기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 이상적 수행자와 현실 속의 수행자의 모습 속에서의 괴리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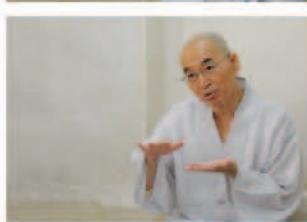
난 어렸을 때부터 절집에서 살았고, 세속에 나가서도 수행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았기에 그런 괴리감은 크게 못 느꼈어요. 다만, 사회운동을 하면서 때로는 투쟁을 해야 하는 경우 불체자로서 갈등을 느낀 적은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북한 난민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할 때에도 중국 당국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중국 법에 어긋나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과연 이 일이 승려로서 해야 할 일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했었죠. 그럴 때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부처님 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잘 살피고,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행을 기본으로 하면서 활동을 했으며 사제司祭계급으로서가 아닌, 출가사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간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잘 극복해내리라 봅니다.

— 통일을 위해 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미래를 넓게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 국민들의 의식의 지평을 넓혀주고, 통일이 시대적 과제임을 깨우쳐 주는 것이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이지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국가나 국민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청소년문제, 이혼문제, 교육문제 등에 종교인이 사회에 기여할 영역은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행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욕심으로 일을 해서 쉽게 지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꾸준히 자기 수행력을 키워 나가야겠죠.



— 저희들이 지금껏 살면서 간혹 느껴온 건데요, 남을 도와줄 힘이 부족하여 이게 한계인 것 같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을 돋는 것도 욕심으로 하면 자신의 무능을 탓하게 되죠. 나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욕심으로 하면 내가 지치고 결국 자기 한계를 느끼고 그만두게 되지요. 이럴 때 남을 탓하지 말고 자기 수행 점검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도와줄 스승이나 도반이 없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해 나가야죠.

—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선지식’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첫째, 수행자는 자기 정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을 감당 못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기 스스로 행복하고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둘째, 타인도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더 나아가 불법에 귀의하지 않는 이들도 이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과 타인, 개인과 사회의 모든 영역까지도 포용할 줄 아는 정도가 되어야 이 시대에 걸맞은 선지식이 아닐까 싶네요.

— 승기는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위계질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트렌드인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승가의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일단은 사회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소통의 종교로선 불교의 가르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사상에 입각해서 서로 다름이 차별이 아니라 다만 차이임을 알아 서로 다름이 공존하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승단에서 비구, 비구니와 재가불자 간의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즉, ‘스님’이라는 권위의식을 버려야만 진정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소통이란 타인의 입장에 서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해와 관용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환경적인 특혜를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한다면 그것은 이미 시작부터가 어긋났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기득권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나와 타인이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마지막으로 스님께서 불교의 차세대 리더가 될 학인스님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승복이라는 제복제도 안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세요. 승려는 수행자이지 사제가 아닙니다. 수행의 기초를 잘 닦아 사람에게 귀의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에 귀의해야 합니다. 사제로서 복을 벨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수행자로서 다른 이들의 고뇌를 덜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지친다거나, 힘들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곧

자기수양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삭발영의했을 때의 그 초심을 잘 잡아 중심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 승가제도 내에서의 선배나 스승을 볼 때, ‘왜 저럴까?’ 하는 분별심을 내기보다는 그 선배스님들이 살아온 시대적 환경 및 모순을 이해하고 그것마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승복의 특혜에 대해 마냥 당연하게 받을 줄 알면 안 돼요. 상대는 내가 입고 있는 승복에게 절을 하지만, 나는 절하는 ‘사람’ 자체에게 인사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업의 흐름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점검을 잘 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고난은 곧 공부예요. 지나고 보면 다 내 공부에 밑거름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스님들이 이 강원에 있는 4년은 온갖 경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여러가지 수행의 기간이므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들의 질문에 정성스레 답변을 해주신 스님 덕분에 두어 시간 가량의 스님과의 소중한 인터뷰가 막을 내렸다. 더운 날씨에 좁은 방에서 6명이나 들어앉아 이야기를 나누느라 땀을 빼질 빼질 흘렸던 우리들과는 달리, 단식수행을 마치고 오셔서 그러신지 더 야위고 맑아 보였던 스님은 더워하시는 기색 없이 침착하고 담담한 어조로 말씀해주셨다.

인터뷰를 마친 후, 정토수련원에서 하루를 묵는 기회를 가졌다.

항상 도량 내엔 스님들이 더 많은 것만 봐와서 그런지 이곳에서의 젊은 학생들로부터 나이 지긋하신 분들까지 여러 많은 대중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웬지 낯설게만 느껴졌다. 강원에서의 우리들처럼 공양하자마자 도량 청소하고, 맡은 소임 따라 기도하고 수행하는 모습들이 스님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더욱 철저하게 수행생활에 충실히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특히, 온 대중이 다 모여 발우 공양하면 아침 발우시간. 법공양 계송보다 더 긴 계송들을 정성스레 합송하는 모습, 절도 있게 행익하는 모습 그리고 공양 후 공사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규칙을 어겼거나 잘못한 일을 발로참회發露懺悔하는 모습은 나에게 있어 매우 새롭고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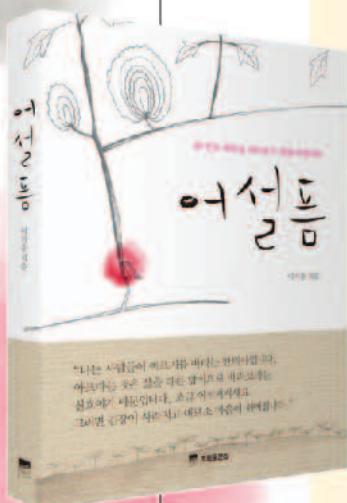
재가불자이지만 수행자답게 열심히 정진하며 생활하고 있는 정토 수련생들……. 조금 힘들거나 아픈 경계가 올 때면 퇴굴심을 내고 게으른 생각을 했던 지난날의 나의 행동들을 반성하게 해주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법륜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앞으로 수행 길에 있어 방황하지 않고, 올곧게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되새겨본다. 밝은 햇살에 더욱더 청명하게 빛을 발하던 희양산을 기억하며 다짐, 또 다짐해 본다. ●

한 번도 제대로 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 이기웅 님의 『어설플』을 읽고 –

경인 / 운문사 한문불전 대학원



무한경쟁의 시대, 남보다 앞서기 위해,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남을 이기기 위해 모두들 쉼 없이 달려가는 이 시대에 혼자서만 느릿느릿, 물처럼 바람처럼 자연을 삶은 어설픈 한 남자가 있다. 충남 논산 사포리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한의사 이기웅 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나는 사람들이 아프기를 바라는 한의사입니다.

아프다는 것은 삶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설플게요. 그러면 긴장이 사라지고 비로소 마음이 쉬어집니다.”

그는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침이나 약을 짓기에 앞서 환자들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는 사연들을 끌어내고, 때때로 그들과 함께 여행하며 마음으로부터 몸의 병을 치료하고자 애쓴다. 한의사로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침놓고 약을 짓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던 삶에서 벗어나 가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삶의 시선을 바꿔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익의 관점이 아닌 즐거움과 감동, 어설플의 관점으로 삶의 시선을 바꿨을 때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들려준다.

사람들이 병을 얻게 된 사연들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쉼’이었다.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 긴 병 끝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 과거의 기억에 묶여 우울증의 깊은 터널에 갇혀버린 사람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

께 여행하며 참된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그의 처방법이자 사명이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몸의 긴장을 풀고 제대로 쉬기 위해서는 조금 어설퍼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익을 쫓다 보면 간절해지고, 간절해지면 늘 몸이 긴장하게 된다. 긴장이 쌓이고 쌓여 몸에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와도 사람들은 삶을 보류하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린다. 그러다 덜컥 병에 걸리고 나서야 깨닫는다. 진작 쉬어야 했음을……. 하지만 막상 시간이 주어진 뒤에는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몰라서 혜매는 사람들에게 그는 말한다.

“어설퍼지세요. 그러면 마음이 쉬어집니다.”

갈수록 정교하고 완벽해져야만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설퍼지지 않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살아보라니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가 이러한 독특한 처방을 내리게 된 것은 오랜 병 끝에 지칠 대로 지쳐서, 혹은 뚜렷한 이유 없는 질환에 시달리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의원을 찾은 사람들의 진짜 환부가 몸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뒤부터다.

꽉 조인 나사처럼 이익의 질서에만 복무하던 기존의 삶을 거부할 때 비로소 세상의 방식이 아닌 나만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삶의 방식을 통틀어 그는 ‘어설픈’이라고 부른다. 몸의 긴장이 이완이라는 형태로 풀어진다면, 정신의 긴장은 어설픈이라는 형태로 풀어진다. ‘반드시’, ‘기필코’, ‘무조건’이 사라진 삶, 이익과 손해라는 이분법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평화가 깃들어 있기 마련이다. 어설픈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 어설픈기 위해서는 우선 쉬어야 한다. 쉬면서 자신의 삶을 구경꾼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여행을 떠난다. 배낭을 메고 멀리 떠나는 여행일 수도 있고, 혹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나’를 찾아가는 내면의 여행일 수도 있다. 그 길에서 잃어버린 꿈을 만나기도 하고 세상이 주는 사소하지만 소중한 아름다움을 만나기도 한다. 그리고 비로소 ‘본연의 나’를 만난다. 이것이 바로 자기만의 삶에 이르는 어설픈의 여정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 책은 그렇게 먼 길을 돌아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또한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권하는 어설픈 여행법이기도 하다.

그는 스스로를 참 어설픈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병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어설픈지 않다. 그것은 그가 자연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어설픈’이란 말 속에는 느낌과 여유와 자연스러움이 묻어난다. 산, 강, 들, 꽃과 나무, 바위 등 자연은 그대로 두면 결코 병드는 법이 없다.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병들게 할 뿐, 그대로 두면 그 자체로 건강하다. 자연이 자연인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조금 어설픈면 어설픈대로, 조금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조금 느리면 느린대로 우리네 삶도 자연스럽게 흐르면 병들지 않을 것이다. 호박꽃이 장미꽃을 시샘하지 않고 까마귀가 백조가 아님을 푸념하지 않듯이, 있는 그대로 물 흐르듯 살다보면 쉬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백, 천 개의 등불의 빛이 한 방 안에 비치면

경전에서는 모두에게 있는 깨달음의 성품은
번만하여 누구나 깨달을 수 있음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하는 것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아닐 것이요. 행복은, 수행은 여기
에서만 가능한 일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출
가를 했든 마음에 살든 모습이 같은 다른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이다.

다만, 출가는 온 생을 '수행'을 통해 행복해
지려는 삶의 한 가지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
리는 소임에, 대중 사이에서, 현실에, 적당히
길들여져 '스님'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가을에 출가한 사람은 봄에 출가하는 사람보다
더 오래 그 길을 간다는 말이 있다. 늦은 가을에 출
가한 사람이 더 오래 수행의 길을 간다는 이 말은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그것은 계절이 갖는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봄이 갖는 계절적 느낌은 '환희' 인
데 가을은 '무상, 슬픔'이다. 즉, 고통을 깊이 알아
삶의 무상을 절감한 출가라야 더 이 길에 오래 걸어
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닐까.

그러나 봄과 같은 '환희'로 출가를 했든 가을
과 같은 '무상'의 절감으로 출가를 했든 출가할 당시의
절실히는 대개, 절집에서의 짐자는 법, 먹는
법, 입는 법, 거처하는 법 등등 절집 생활을 익히며
무뎌지게 마련이다. 그러다 절집 생활이 익어지는
즈음에는 밖의 경계에 한참 흔들리고 그 뒤 홀로 혼
자 되묻는 시간이 올 것이다. '내가 출가해서 구하
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이러한 질문의
시간이 강원 4년 중 한때일 것이다.

'내가 왜 출가했던가' 또는 '나는 앞으로 무
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의 의문이 단순히
신심의 문제만은 아니다. 불법에 대한 환희심이
든, 삶에 대한 비장함이든 초발심자가 갖는 '출가'
에 대한 환상이 지금 여기의, '생활'로 내려올 때
다가오는 질문이다. 즉, 처음 출가할 때 생각한 출
가 또는 스님이란 것이 저 멀리 상그럴라 어딘가의
그림이 아닌 현실, 밥 먹고 입고 씻고 자고 예불 모
시고 풀 뽑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절감하게 된
다. 또한 우리 자신이 출가한 순간부터 "스님"이라
는 이름을 입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은

단절이 아닌 어떤 한 과정에 있을 뿐이다. 우리는 분명 있던 자리에서 떠나 다른 모습을 택했지만 모습이 달라진다 해서 수행이 되는 것은, 더더욱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묻게 될 것이다. 나는 왜 출가했을까.

선남자여, 저 묘한 깨달음의 성품이 변만한 까닭에 근의 성품과 진의 성품이 무너짐도 없고 섞임도 없으며, 근과 진이 무너짐이 없는 까닭에 이와 같이 내지 다라니문이 무너짐도 없고 섞임도 없느니라, 마치 백, 천 개의 등불의 빛이 한 방 안에 비치면 그 빛이 두루 기득하여 무너짐도 없고 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 《원각경》〈보안보살장〉

경전에서는 모두에게 있는 깨달음의 성품은 변만하여 누구나 깨달을 수 있음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하는 것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만은 아닐 것이요, 행복은 또는 수행은 여기에서만 가능한 일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출가를 했든 마을에 살든 모습이 같은 다른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이다.

다만, 출가는 온 생을 ‘수행’을 통해 행복해지려는 삶의 한 가지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임에, 대중 사이에서, 현실에, 적당히 길들여져 ‘스님’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내가 출가한 것은 불교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지, 진리가 불법에 없다면 언제든 진리를 찾아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출가의 목적을, 수행의 목표와 무엇을 수행 삼을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팀방을 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신심을 키워야 하는지 묻고 들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요?”라고 묻는 학인스님들에게 종림 스님은 짧고도 단호하게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답해주셨다. ‘스님답게’, ‘비구니답게’가 아닌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고 그 일로 사회에 구멍 난 어떤 부분을 이어준다면 그걸로 죽하지 않겠느냐는 스님의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스님답게’가 아닌 내 삶에 충실하고 민족하고 행복할 때, 스스로의 삶에서 확신으로 빛을 발할 때, 아름다운 수행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닐까.

자,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는다. 이 저물어 가는 가을에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한가. 당신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예비승려인 강원 4년. 힘껏 고민해 이 일을 마친다면,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을 것이다. ☺



▲ 회주스님 특강



▲ 도선사 108산사 순례 운문사 방문



▲ 운문유치원어린이 수계식



▲ 중구일제



▲ 배추솎기 대중운력

운문소식

- 9월 3일 가을철 개학공사가 청풍묘에서 있었습니다.
- 9월 5일 염불수업을 시작으로 일본어수업, 요가 및 서예 외전수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 9월 8일 회주스님의 묘법연화경 실상서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9월 9일 오백전에서 '오백나한님과 함께하는 100일간의 수행' 기도입체가 있었고 주지 스님의 입재법문이 있었습니다.
- 9월 29일 추석맞이 송편 빙기 대중운력이 청풍묘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5일 '제 41차 운문사 총동문회(회장 18회 우송스님) 및 정기총회' 가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이상규 변호사님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특강이 시청각실에 서 있었습니다.
- 10월 5~21일 오채현 작가님의 '천진불' 석불조각전이 운문사 만세루에서 전시되었습니다. 그 중 관세음보살님과 3층 석탑을 수트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포행길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 10월 6~8일 화엄반스님들의 졸업여행을 위한 산중기도가 비로전에서 있었습니다. 치문반스님들의 첫 논강이 청풍묘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9일 서광·원법·중강스님과 화엄반스님이 14박 15일간 인도 성지순례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10월 12~26일 동화사 승시 범교대회에 사교반·사집반스님이 참가하여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10월 14일 도선사(회주 선목혜자스님) 108순례단의 제73회 운문사순례가 있었습니다.
- 10월 18~20일 운문유치원 졸업반 어린이 수계식이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회주 스님께서 전제사로 수제해 주시고, 주지스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고추파기 대중운력이 있었습니다.
- 10월 21일 중구일제重九日祭가 조사전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22일 미국인 교육자 13명의 운문사 텁풀스테이가 있었습니다. 교무스님과 대학원 지호스님이 지도에 힘써 주셨습니다.
- 10월 23일 가을철 첫 自恣가 청풍묘에서 있었습니다. 아울러 제49회 졸업반 인도 성지순례 보교회가 있었습니다.
- 10월 30~31일 배추솎기 대중운력이 있었습니다.
- 11월 2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묘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3일 겨울준비로 김장 대중운력이 있었습니다.
- 11월 9일 '연꽃처럼 굽고 향기로운 어린이 법회' 주제로 경주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제54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에 교회부스님 30명이 다녀왔습니다.
- 11월 19~20일 가을철 두 번째 自恣와 종강을 합니다. 겨울결제를 하며 원묘 강사스님이 교무 소임을 맡게 됩니다. 그동안 균형하신 은광 강사스님께 감사드립니다.
- 11월 24~25일
- 11월 27일

도화주신 분

- 권혁창 • 김남숙 • 김성록 • 김지영 • 도우 스님 • 마산여래불교사
- 미가 스님 • 박현희 • 배종옥 • 백일석 • 이기태 • 이정숙 • 해원 스님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통권 122호, 가을호, “물드는 달”



연화장세계, 그림 덕현 / 대교과

운문사 가을 보름달은 휘장을 쳐 놓은 호거산을 비추고 엷은 비취색의 싸늘한 공기를 비춘다. 그런 달빛을 보고 있노라면 회향이란 것은 저 달빛 같아야 하지 않을까싶다. 눈부시게 밝진 않으나 분명히 만물을 비춰주는, 만물을 형형색색 드러내주진 않아도 다른 모습을 드러내주는, 도우나 돋는다는 생각이 없는, 은은하게 스며드는, 그런 회향.
짙어짐이 정진수행이라면 짙어짐이 다해 물들어 어우러져 만풍드는 가을산은 또한 그런 회향이라리라. 운문지도, 이 안에 적힌 누군가의 글이, 한 문장이, 한 단어가, 한 글자가, 또는 사진 한컷이 누군가의 마음에 다가가고, 누군가를 물들이고, 누군가에게 신심을 내게 하면 좋겠다 싶은 기울이다. 앞으로 우리의 수행도, 회향도 물들어가고 물들여지는 어우러짐이면 좋겠다. - 海

운문사의 호거산과 은행나무를 쳐다보고 있노라면 물결의 새싹들이 뽑어내는 향연의 느낌과는 또다른 설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머금은 불, 여름, 가을의 햇살 양에 맞추어 각양각색의 옷을 바꿔 입는 그들과 1년 동안 자신이 내어놓은 발자취, 그 자취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로 서서히 익어 나오는 수행자의 수행력과 마음 쌈씀이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자연을 통해 자신을 회광반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을을 바라보는 운문사 학인의 마음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운문지를 펴들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가을은 어떠하신지요… - 祐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학인스님들의 기고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담습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122호 가을호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은 쉽니다.

* 122호 가을호부터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미국불교 체험기”를 주제로 앞으로 연재해 주실 분은 운문사 선배이신 운성 스님(현 국제불교학교)입니다.

* 지난 121호 여름호 사찰탐방에 소개된 ‘자광원’을 생활재활센터가 아닌 40인이 거주하는 생활시설로 정정합니다.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13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운문사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자 격	1. 2012년 기울 수계자까지(행자교육 43기 이전) 2. 타 승가대학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모집인원	사미니과 ○○명
시험과목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제출서류	1. 입학원세(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본인 법명 도장 및 증명사진(장삼·만의 착용) 2매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및 최종학력 증명서
준 비 물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동방마 (복장은 반드시 사미니 의제 착용, 구족계 수지자는 제외)
모집기간	2013년 1월 15일(음력 12월 4일) ~ 2013년 1월 30일(음력 12월 19일)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도착일시	2013년 1월 30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시험일시	2013년 1월 31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교 통 편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운문사승가대학 학장 홍륜 · 주지 일진

모집대상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3년도 불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모집인원	○○명
제출서류	1. 입학원세(본 유희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7. 증명사진 2매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
준 비 물	가사, 장삼, 승려증
전형일시	2013년 1월 30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운문사 승가대학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윤주 홍륜

* 승가대학 신입생, 보현율원 및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가을호 · 통권 제122호 · 2012년 11월 15일 발행 · 등록 1995년 3월 29일 · 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 · 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 · 명성(전임호)
고분·진광 / 편집 · 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 · 덕해 / 편집위원 · 덕녕, 영조, 나경, 효엄, 제법, 종윤, 능관 / 사진 · 편집부 / 표지사진 · 덕해(기울산행
가던 날) / 삽화 · 혜덕 / 편집디자인 · MARU(마루) (053)426-3395